

조선 후기 문인들이 明代 文壇 경향을 파악하는

한 방법:

明代 散文選集 『明文奇賞』을 중심으로

구슬아 *

I. 서론

본고는 17세기 중반 이후 조선에 유통되었던 중국본 明代 散文選集(이하 明文選集)의 구체적 실체를 확인하고, 명문선집이 중국의 文壇 경향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주요한 토대가 되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그것이 조선 문인들의 명대 산문 이해의 과정에 활용되는 양상을 살펴려는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前後七子로 대표되는 秦漢古文派의 수용, 唐宋古文派의 대두, 公安派 문학의 유행 등으로 이어지는 조선 중·후기 산문의 변화는, 비슷한 시기인 明末清初 문단의 경향과 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수용한 데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학계의 지론이다. 許筠이나 李宜顯, 洪奭周 등의 독서목록을 살펴보면 당시 사대부들이 명·청대 주요 문인들의 개인문집을 접하고 있던 정황을 포착할 수 있는데, 선행연구들 역시 일찍이 이러한 기록들에 주목하여 그들의 문학론이나 조선 문단에 끼친 명·청대 문학의 영향을 규명하였다. 그 가운데 본고와 관심 영역이 일치하여 방법론적으로 주목한 것을 유별하자면, 전후칠자를 위시한 復古派의 영향을 다룬 수용론적 연구,¹⁾ 18세기 이후 봄을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 수료

1) 강명관, 『공안파와 조선 후기 한문학』, 소명출판, 2007; 강명관, 『안쪽과 바깥쪽』,

이론 小品文에 주목하고, 구체적 독서 양상을 통해 중국의 영향을 파악한 실증적 연구,²⁾ 명대 문학을 비판적으로 이해·수용한 양상을 고찰한 연구³⁾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강명관의 연구는 명·청 문학과 조선 후기 문학의 영향 수수관계에 집중한 것으로, 조선 후기 한문학의 변화를 추동한 것은 명·청 문학의 지대한 영향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는 중국의 영향을 지나치게 일면적·단선적으로 강조함으로써 한국 문학의 주체성을 탐구하려는 문제의식 자체를 지나치게 약화시켰다는 비판⁴⁾을 받고 있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 서는 당대에 어떤 서적들이 어떤 독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수용되었는지에 대한 보다 세밀하고 실증적인 독해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김영진과 안대희의 연구는 조선 후기, 특히 18·19세기 산문의 획기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는 소품문에 주목하고 있다. 소품문은 주자학적 사유체계에 기본을 둔 문학과는 상당히 다른 문학으로서 우리 문학사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하였다는 것이다.⁵⁾ 이상의 연구는 명말청초 문집의 독서정황에 대한 치밀한 실증적 조사를 기초로 하고 있다는 점, 기존에 주목 받지 못했던 소품문에 초점을 맞추어 조선 후기 산문사의 새 국면을 조명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인정받고 있다.⁶⁾ 그러나 지나치게 선명한 논지로

소명출판, 2007을 대표적 연구로 들 수 있다.

- 2) 김영진, 「『虞初新志』의 판본과 조선 후기 문인들의 명청소품 閱讀」, 『조선후기 小品文의 실체』, 태학사, 2003; 김영진, 「李鉉의 가계와 명청소품 독서」, 위의 책, 2003; 김영진, 「조선후기의 명청소품 수용과 소품문의 전개 양상」,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3; 안대희, 「조선후기 소품문의 성행과 글쓰기의 변모」, 『조선후기 小品文의 실체』, 태학사, 2003을 들 수 있다.
- 3) 노경희, 「17세기 명대문학론의 유입과 한문산문의 ‘朝鮮的’ 전개에 대한 一考」, 『고전문학연구』 27, 한국고전문학회, 2005; 최은주, 「조선후기 시문선집에 나타난 명대 문학의 수용 양상」, 『동방한문학』 24, 동방한문학회, 2003; 최은주, 「17세기 시선집 편찬에 대한 연구」, 경북대 박사학위논문, 2008.
- 4) 김대중, 「조선후기 한문학 연구와 ‘중국’이라는 타자」, 『대동문화연구』 60,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7, 228-229면.
- 5) 안대희, 위의 논문, 97-98면.
- 6) 이 일련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조선후기 산문 연구에 소품문의 ‘붐’이 일어나기도 했다.

고문과 소품문을 二分하고 있어, 오히려 조선 후기 산문사의 다채로운 경향을 퇴색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명대의 다양한 문학 유파들에 대한 이해와 수용이 조선 후기에 동시대 공존했을 가능성은 간과한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다.

마지막으로 노경희의 연구는 17세기 후반에 金錫胄(1634~1684)가 개인적으로 간행한 산문선집인 『皇明茅鹿門王弇州二大家文抄』에 주목한 연구이다. 茅坤과 王世貞의 문예론을 조화시키려는 의도에서 이 선집이 기획되었는데, 이러한 선집의 존재 사실은 명대 문학 수용의 ‘朝鮮的’ 특징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중국 문단과의 영향수수관계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오던 것과는 달리, 조선 문단이 보여주는 중국 문단에 대한 ‘비판적 이해’의 실례를 들어 새로운 시각을 도출해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본고 역시 이러한 선행연구의 방법론, 즉 명·청 시대의 주요 문집 가운데 조선에 유입된 것은 무엇이고, 그것이 누구에게 어떻게 인식되었는지를 추적함으로써 명·청 문학과 조선 문학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밝히는 연구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그런데 다종다양하고 방대한 중국 문인들의 개인문집을 조선의 독자들이 두루 독서하기란 생각보다 어려웠을 것이라 판단된다. 18세기에 들어 중국 문단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와 비평이 본격화되는 점, 조선의 문인들이 남긴 글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개인 문집 독서의 흔적, 使行을 통한 서적의 대량 수집 경향 및 동시간적 수용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개인문집의 독서가 충분히 이루어졌음은 결코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개인문집 외에, 명나라에서 간행되어 조선으로 유입된 산문선집의 존재가 조선 후기 문집 곳곳에 기록되어 있어 주목을 요한다.

명문선집에 대한 기록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이의현의 『陶峽叢說』로 보인다. 이 글에서 이의현은 『明文奇賞』, 『十大家文選』, 『明文英華』 등 선행연구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몇 종의 명대 산문선집에 대해 언급한다. 또한 이 글은 명문선집의 수용이 조선 문인들에게 명대 문단의 동향을 한 눈에 파악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추측하게 하는 단서들을 남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문선집에 대한 주목 및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⁷⁾

특히 그 가운데 『명문기상』은 현재 국내에 소장되어 있는 본이 많다는 점, 그 書名을 직접 언급하고 있는 문인들의 글이 많다는 점, 또 이를 자체적으로 재가공한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명문선집의 대표성을 갖는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중국본 명문선집인 『명문기상』의 수용 사례를 중심으로, 명문선집의 독서과정과 조선 문인의 명대 문단에 대한 인식의 관련 양상을 살펴보면서 조선 후기 산문사의 또 다른 면모를 규명하고자 한다.

II. 조선 후기 문인의 明代 文壇 이해

崔圭立, 尹根壽, 李廷龜, 李植 등으로 대표되는 조선 중기 문인들은 진하고 문 혹은 당송고문을 위주로 한 복고적 산문론을 전개하고 있었다. 그들의 기록에 산견되는 당송고문과 및 명대 문장가에 대한 이해와 평가에 그러한 시각이 선명히 드러난다. 그런데 기록들을 좀 더 살펴보면 그들이 비단 전후칠자나 공안파와 같이 조선 중·후기에 유행하던 명대 특정 文學類派에 대한 평가를 넘어서, 명대 문단의 경향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분류하려는 시도 역시 하였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당나라나 송나라의 문단을 바라보던 이전시기 조선 문인들의 시각과 변별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이 장에서는 산문선집 수용에 대한 고찰에 앞서 이식, 金昌協, 홍석주 등 의 기록을 중심으로 조선 중·후기 유력 문인들이 가지고 있던 명대 문단에 대한 기본적 시각을 살펴볼 예정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조선 중·후기의 문인들은 명대 문단을 크게 두 개의 유파로 나누고, 각 유파별 특징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택당 이식은 일찍이 〈作文模範〉에서 명대 산문을 두 갈래로 파악한 바 있다. 바로 方孝孺나 王守仁과 같이 中正한 문예미를 보이는 당송고문과 계

7) 이 시기의 다양한 詩選集에 대한 주목과 비교하여, 文選集에 대한 주목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는 시선집에 비해 문선집의 종류가 적은 점, 조선에서 간행된 중국 문선집의 사례가 적은 점, 중국본 문선집에 대한 주목이 없었던 점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열과, 李夢陽 이하 四大家나 十大家⁸⁾의 경우처럼 『春秋左傳』, 『國語』, 班固, 司馬遷의 문장을 학습하되 세속과 달리하는 것을 고상하게 여기는 진한고문과 계열의 두 부류로 나누었다. 특히 이식은 후자의 그룹에 대해, 오늘날 배우기도 어려울 뿐더러 실생활에 적용할 만한 글쓰기가 아니라고 하며 결코 배워서는 안 된다고 보았고, 전자의 그룹에 대해서는 각각 韓愈와 歐陽脩에 비기며 이들의 문장을 배워야 함을 강조했다.⁹⁾ 다만 진한고문파로 분류되는 십대가에 중정한 계열로 간주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왕수인이 重出하고 있다는 모순을 보인다. 그러한 점에서 이식은 명대 산문의 경향을 두 갈래로 나누되, 그 분류가 아직 예각화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택당의 뒤를 이어 김창협(1651~1708) 역시 명대 산문을 대체적으로 두 갈래로 나누어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명나라 문장가 중, 예를 들어 손지(遜之-방효유), 양명(陽明-왕수인), 준암(遵巖-王慎中), 형천(荊川-唐順之)과 같은 경우는 모두 구양수, 소식의 유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가운데 방손자는 규모가 넓고 크며 필력이 거침없고 기세가 넘친다. 그러나 수렴하여 불필요한 것을 잘라내 버리는 점에는 부족하다. 왕양명은 타고난 재주가 뛰어나고 영민하며, 글의 배치와 개합 등의 장법을 잘 구사하나, 심오하고 典雅하며 중후한 운치는 부족하다. 이것이 구양수, 소식에 미치지 못한 점이다. 왕준암, 당형천은 규모의 측면에서는 방손자보다 못하고, 뛰어나고 영민한 재주의 측면에서는 왕양명만 못하지만 체재는 더 정밀하다. 그러나 요컨대 방손자, 왕양명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였다.¹⁰⁾

8) 십대가란 鐘惺이 『皇明十大家文選』에 선발한 바 있는 李夢陽, 王維楨, 李攀龍, 王世貞, 王道崑, 唐順之, 茅坤, 王愼中, 王守仁, 董份 등 10명의 문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9) 이식, 『澤堂先生別集』 권14, 「雜著」, 〈作文模範〉, “大明之文有二道, 方遜志、王陽明, 最為中正, 乃韓、歐之類也。崆峒以下四大家、十大家, 則專學左、國、班、馬, 務以不諧世俗為高, 施之於今, 一無當於詞令, 學之又極難, 決不可入其門也。” 정민(『朝鮮後期古文論研究』, 아세아문화사, 1989, 40-41면)은 이식이 儒家의 義理道德을 담아 당대에 통용될 수 있는 (당송)고문을 지향했음을 규명하였다.

10) 김창협, 『農巖集』 권34, 「雜識」, 〈外篇〉, “明文如遜志、陽明、遵巖、荊川, 皆是歐、蘇流派, 就中遜志, 規模宏大, 筆力滂沛, 而少收斂裁翦之功; 陽明, 天才豪敏, 有操縱有闡闡, 而少深渟淳厚之致, 此所以不及歐、蘇、遵巖、荊川, 宏大不如遜志, 豪敏不如陽明, 而體裁則加密焉, 然要不出方、王度內耳.”

김창협은 방효유·왕수인처럼 그 문예미가 平正하거나 호방한 품격을 보이는 理學家 계열 문인을 고평하고, 나아가 왕신중·당순지 등 이른바 당송 고문과 문인을 이들과 한 그룹으로 엮어 제시하였다. 또한 이 그룹에 속한 문인들의 개별적 장처와 단점을 비교하고 그 특징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김창협은 이식의 분류를 계승하여 확충하고 있으며, 특히 이식과 마찬가지로 양명학자라는 점으로 인해 혹평을 받았던 왕수인에 대해 그의 행적과는 별개로 문장만을 따로 논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김창협은 산문 창작에 있어 한유·구양수·曾鞏·蘇軾의 글쓰기를 전범으로 삼아 당송고문의 경지에 도달하고자 하였는데, 명대 산문을 분류함에 있어서도 그러한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¹¹⁾ 편의상 이들을 ‘제1그룹’이라고 명명하겠다. 이러한 문장관을 구체화하여 김창협은 이 계열과 변별되는 또 다른 그룹을 상정하여 비판하고 있다.

명나라 사람 중에 예를 들어 공동(空同-이몽양), 엄주(弇州-왕세정)의 유파와 같은 경우는 실로 한유, 구양수의 정맥이 아니다. 그러나 방순지, 왕양명, 왕준암, 당형천 등 몇몇 대기는 모두 경술에 대한 조예가 깊고 이치에 뛰어나며, 규모가 크고 넓으며, 정밀하고도 깊이가 있으며, 고명하고 剛勁하면서도 간결하였으니, 모두 계곡(장유)이 미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왕양명은 진실로 글에 과장된 부분이 있기는 하나, 그는 타고난 재주가 본디 높아 문장 배치에 뛰어났던 것이요, 부질없이 장황한 것은 아니다. 우옹(장유)은 사실 명나라의 문장을 많이 보지 못하여 “명나라 사람들은 모두 거짓으로 고문을 배웠다.”고 일률적으로 평가하였는데, 이는 왕준암, 당형천의 유파가 있었음을 몰랐던 것이다.¹²⁾

농암은 앞서 언급한 평정한 문예미를 보이는 ‘제1그룹’과 다른 ‘제2그룹’

11) 이에 대해 정민은 농암이 고문 작법에 실제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平正簡潔의 법과 眞實本色을 추구하고 伸縮變化하는 법을 중시하였다고 파악하였다. 또한 ‘韓歐正脈’으로 요약할 수 있는 經術에 바탕을 둔 의리의 문장을 추구하였다고 보았다(정민, 앞의 책, 44면).

12) 김창협, 『農巖集』 권34, 「雜識」, 〈外篇〉, “明人如空同、弇州一派，固非韓、歐正脉。至於遜志、陽明、遵巖、荊川數大家，皆深於經術，優於理致，宏博精深，高明峻潔，皆非谿谷所能及。陽明誠有誇張處，然其天才自高，長於操縱，非徒爲張皇者也。尤翁實不多見明文，槩謂明人皆僞學古文，不知自有遵巖、荊川一派。”

을 구별하고 있다. 여기에는 이른바 전후칠자의 대표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李夢陽과 王世貞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그룹에 대해 농암은 韓歐正脉이 아니라는 평가로 일축하고 있다. 실제로 농암은 이몽양과 王世貞의 글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남기고 있는데, 이몽양에 대해서는 그 글에 간혹 한두 편 佳作이 있기는 하지만 『춘추좌전』과 사마천을 본받으면서 모방한 것을 지나치게 드러내었고, 이를 자신의 것으로 녹여 연마하지는 못하였다고 보았다.¹³⁾ 또한 王世貞은 반고와 사마천의 문장을 배우며 이들의 글을 극력 모방하고 추종하였다고 보았으나 그 수준이 구양수 등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였다.¹⁴⁾ 보다 구체적으로는 王世貞이 옛 사람이 요령을 제시하고 의리가 드러나는 중요한 점을 착종한 묘미를 알지 못하고 그저 옛사람의 글귀와 글자를 그대로 따라서 모방하려고만 하였다고 혹평하였다.¹⁵⁾

농암이 분류한 제2그룹에 속하는 다른 인물로는 李攀龍, 何景明을 들 수 있다.¹⁶⁾ 모두 ‘전후칠자’에 속하는 인물들이다. 농암은 이들이 옛 사람들의 문장을 배우려고 하였으나 그 요점을 잘 배우지 못했고 표절을 일삼았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옛사람들의 간략함은 篇法을 간략히 한 것이었는데 명나라 사람들의 간략함은 字句를 간략히 한 것이었으며, 옛사람들의 상세함은 大體를 상세히 한 것이었는데 명나라 사람들의 상세함은 작은 일을 상세히 한 것이었다.”¹⁷⁾라는 말로 요약함으로써 모의에 그친 전후칠자의 복고에 대해 비판하였다.

한편, 농암은 이른바 ‘竟陵派’로 불리는 鍾惺, 譚元春에 대해서도 비판적

13) 김창협, 『農巖集』 권34, 「雜識」, 〈外篇〉, “李空同文, 學左、馬, 雖模擬太露, 鎔鍊未至, 全篇合作者少。而往往古直蒼健, 有一二可喜處。”

14) 김창협, 『農巖集』 권34, 「雜識」, 〈外篇〉, “王弇州自謂學班、馬, 其爲碑誌敘事, 極力摹畫, 若將以追踵古人, 而其實遠不及宋之歐、王。”

15) 김창협, 『農巖集』 권34, 「雜識」, 〈外篇〉, “弇州不知古人提挈錯綜之妙, 而只欲以句子, 步趣模擬。故其爲碑誌敘事, 不問巨細輕重, 悉書具載, 煩冗猥瑣, 動盈篇牘, 紗領眼目, 未能挈出點注, 首尾本末, 全無伸縮變化。其所自以爲風神景色者, 不過用馬字班句, 緣飾傅會耳, 此何足與議於古人之妙哉?”

16) 모두 〈외편〉에 그 이름이 직접 거론되고 있다.

17) 김창협, 『農巖集』 권34, 「雜識」, 〈外篇〉, “古人之簡, 簡於篇法; 明人之簡, 簡於句子。古人之詳, 詳於大體; 明人之詳, 詳於小事。”

시선을 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명나라 문장의 폐단은 이동양, 하경명에게서 시작되어 왕세정, 이반룡에게서 더
욱 심화되었고, 종성, 담원춘에 이르러서는 극도에 달하였다.¹⁸⁾

경릉파 개별 인물에 대해서는 자세한 비평을 남기지 않았지만 농암이 전
후칠자의 ‘擬古’와 경릉파의 생경함이라는 양 극단에 대해, 이를 순정한 고
문과 대별되는 제2그룹으로 보고 둥뚱그려 비판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
다.¹⁹⁾ 요컨대 농암은 명대 산문에 대해 이학가 계열과 당송 고문을 지향하
던 제1그룹, 모의와 생경함의 혐의를 피할 수 없었던 전후칠자와 경릉파 계
열의 제2그룹으로 나누어 파악하고, 전자에 더 방점을 두고 있다. 이식과
김창협은 각각 명대 산문을 두 그룹으로 유별하긴 하였으나 예시로 든 문인
이 그리 많지 않은 점은 아마도 이 두 문인이 견지하고 있던 확고한 산문
론 내지 특정 산문에 대한 선호·취향 때문이거나, 혹은 좀 더 다양한 문인
의 글에 대한 충분한 독서경험이 축적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농암의 다음 시기에 명대 산문에 대한 유파별 인식의 일단을 보여주는
문인으로 淵泉 洪奭周(1774~1842)를 들 수 있다. 연천은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에 문단을 주도하던 문인이었으며, 수차례 여행을 다녀오면서 엄
청난 장서를 수집하여 읽었던 인물이다. 그런 홍석주가 명대 산문을 선발하
여 ‘甲集’부터 ‘戊集’까지 총 20권의 『明文選(皇明文選)』을 남기고 각 집마다
小識를 부기했다는 기록이 있어 주목을 요한다.²⁰⁾ 먼저 〈選皇明文小識〉

18) 김창협, 『農巖集』 권34, 「雜識」, 〈外篇〉, “明之文弊, 始於李、何, 深於王、李, 轉變
於鍾、譚而極矣.”

19) 정민은 농암이 秦漢에 대한 模擬에 그친 의고파의 주장과, 도학의 굴레에서 벗어
난 개성을 중시하여 虛誕한 미학을 보인 경릉파의 양극단을 동시에 비판함으로써
한유 이래 구양수, 증공의 당송 고문만이 올바른 추구의 대상이 됨을 주장하였다
고 정리하였다(정민, 앞의 책, 44면).

20) 이 책의 존재와 小識에 대해서는 정민 역시 주목하였다(정민, 앞의 책, 86-87면).
한편, 이 책은 현재 남아있지 않고, 홍석주의 외손인 韓章錫이 홍석주의 문집을
엮으며 함께 제시한 〈散書目錄〉(『淵泉先生文集』 권首)에 그 서목이 제시되어 있
다. “明文選二十卷 - 選皇明文, 以甲乙丙丁戊五集別之, 各有小識, 屬仲氏沆瀣公作”

에서 연천은 옛 문장이라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며, 근대의 문장(즉 명청의 문장)이라고 해서 모두 좋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당송고문을 중시하던 조선의 일반적 산문 풍토 등으로 인해 평가절하 되었던 명대 문장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평가하려는 단초가 발견되는 것이다. 특히 명대 산문은 좋은 문장과 나쁜 문장이 한데 뒤섞여 복잡한 데다, 좋은 문장은 적고 나쁜 문장은 많으므로 그 가운데 좋은 글을 선집으로 만들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²¹⁾

명나라의 문장이 융성하면서 요즘 사람들이 그것을 배우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배우는 것은 대부분 나쁜 글들이요, 좋은 글은 적게 읽는다. 그들이 힘쓰는 것은 바로 억지스럽고 난삽한 표현, 알아듣지 못하는 말, 지나치게 꾸미고 과이한 말들로서 오히려 일대의 폐단이 되는 것들이다. (중략) 이 때문에 명나라의 글을 선발하지 않을 수 없다.²²⁾

연천은 명나라에 수많은 作者들이 일어난 것이 先秦兩漢 및 당송보다 많다고 보았으며 그 가운데 잘된 글을 골라 오늘날 조선 문인들의 학습에 도움을 주고자한다는 목적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수많은 작가들의 수만큼 다양한 단점들이 있으므로 학습에 있어 그러한 부분은 지양하고자 하였다. 이에 명대 산문을 문인별로 선별하여 유파를 나누고 그 가운데 가장 뛰어난 문인들을 첫 번째인 ‘甲集’에 배치하였다.

오늘날 문장을 짓는 자들은 대부분 명대의 산문을 숭상한 나머지, 심한 경우는 종종 한유나 유종원, 구양수, 소식 등을 버리고 언급하지 않기에 이르렀다. 또 한

序。今佚不傳，只存小識六篇。”

21) 洪奭周, 『淵泉先生文集』 권24, 「雜著[上]」, 〈選皇明文小識〉, “三代、西漢之文, 至六朝而漓, 振于唐, 再振于北宋。然視古已漸降其下者, 又無識矣。然則曷爲選明文? 於戲! 古之文, 非皆善也, 惟善者而後, 能至今傳。近代之文, 非皆不善也, 善者與不善者, 雜然交糅而莫之擇, 則善者固少, 不善者固多。善者因爲不善者所掩, 而不能自表見。”

22) 홍석주, 『淵泉先生文集』 권24, 「雜著[上]」, 〈選皇明文小識〉, “惟皇明文盛, 為今人所習, 然其所習, 恒多于其不善者, 而寡于其善者, 其靡也, 既以鉤棘侏離纖詭之辭, 病一世矣。(中略)茲明文所以不可無選也。”

편 명대 산문을 비판하는 자들은 ‘명나라에 어찌 글이랄 것이 있겠는가?’라고 비난 한다. 그러나 이 두 경우는 모두 명나라의 글에 대해 모르는 것이다. (중략) 李觀 樊宗師, 劉蛻, 宋祁의 글은 진실로 모두 당송의 글이다. 지금 어떤 자는 이들의 글을 배우고 나서 ‘나는 당송의 글을 배웠다.’라고 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것으로 인하여 비난하기를, ‘당송의 글은 배워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니, 이것을 일찍이 당송의 글을 알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날 명대의 글을 숭상하는 자들도 물론이다. 예컨대 중국에 간 자가 요양이나 심양 근처에 이르러 ‘삼가 점’에 들어가서 옥수수를 쪄 장을 찍어 먹고는 ‘중국에는 먹을 만한 음식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오늘날 명나라 글에 대해 비난하는 자들이 과연 이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내가 송렴 이하로부터 10명의 문인을 선발할 수 있었으니, 이들은 걸출하여 한 시대의 으뜸이 되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갑집』이라고 명명하였다. 특히 그 가운데 송렴, 당순지, 귀유광은 모두 고인들의 말을 전수받았다. 劉基는 송렴에 짹합만하여 높았으며, 방효유와 왕수인은 귀유광과 당순지의 오른편에 둘만하여 내가 감히 뽑았다. 그리고 解緝의 「輕俊」합과, 楊士奇와 이동양의 「平行」합, 왕신중의 「支蔓」한 점은 내 마음에 흡족하지 못한 점은 있으나, 그 장점을 취하면 역시 일세의 으뜸이 될 만하니 마침내 총괄하여 『갑집』 10권을 만들었다.²³⁾

연천이 『갑집』에 선발한 인물은 명초부터 중엽까지의 문인 10명이다. 이들 가운데 송렴, 당순지, 귀유광을 으뜸 가운데 으뜸이라고 보았으며, 그 외에 유기, 방효유, 왕수인, 해진, 왕사기, 이동양, 왕신중이 선발되어 있다. 이들이 바로 연천이 파악한 명대 산문의 제1그룹이다. 글 가운데 언급된 이관, 반종사 등은 한유와 함께 고문운동에 동참했던 인물이고, 송기는 구양수와 함께 『新唐書』를 편찬한 인물이다. 아마도 이들은 자신의 시대를 대표할 만한 유력 문장가가 아닌 경우를 표현하기 위해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즉

23) 홍석주, 『淵泉先生文集』 권24, 「雜著上」, 〈選甲集小識〉, “今之爲文辭者, 大率多尙明文矣, 其甚者, 往往棄韓、柳、歐、蘇不道, 而其詆訶之者, 又率曰: ‘明安得有文?’是二者, 皆未知明文也。(中略)夫李觀、樊宗師、劉蛻、劉暉、宋祁之文, 固皆唐宋也。今有學李觀、樊宗師、劉蛻、劉暉、宋祁之文而曰: ‘吾學唐宋文’, 又有人從而詆之曰: ‘唐宋之文不可學’, 是尙爲知唐宋文也哉? 今之尙明文者, 吾無論已。嚮有適中州者, 至遼瀋之陲, 入其三家店, 炊蜀黍買醬而食之曰: ‘中國無飲膳’, 今之詆訶明文者, 亦奚以異是哉? 余自宋景濂以下得十人, 以其傑然爲一時甲也, 故曰『甲集』。其取宋景濂、唐應德、歸熙甫, 皆古人之餘論也。其以劉伯溫, 配景濂而上之, 而尊方希直、王伯安於歸唐之右, 余竊有取焉爾。若解大紳之輕俊, 楊士奇、李賓之之平行, 王道思之支蔓, 於余心, 有未慊焉。雖然, 推其所長, 亦可以爲一時之甲矣, 遂總爲『甲集』十卷。”

명나라의 ‘제대로 된’ 글을 배우기 위해서는 ‘유력 문인’의 좋은 글을 배워야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선발된 인물들의 면면에서 알 수 있듯 연천은 귀유광, 당순지, 왕신중 등이 강조했던 당송고문 계열을 명대 산문의 정수로 파악하고 중시하는 태도를 가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을집』에는 弘治연간(1489~1505)과 正德연간(1506~1521)에 보이는 ‘雍容和雅’한 풍격의 글을 세 권으로 선별하였는데, 각각 어떤 문인들을 선별하였는지는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다. 『병집』에는 이몽양, 이반룡 등 전후칠자의 글이 선별되어 있는데, 이들로 인해 명대 산문이 변질되었으며 고문가에 짹 할 수는 없으나 그 중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들을 골라 세 권으로 엮었다고 하였다.²⁴⁾ 『정집』은 전후칠자 이후 미처 일가를 이루지 못한 문사들의 글을, 『무집』은 정말 유신들의 비분강개한 글을 각각 두 권으로 선별하였다고 하였다.²⁵⁾ 요컨대 홍석주는 명대 산문을 시기에 따라 크게 다섯 그룹으로 선별하였지만, 『정집』과 『무집』은 그 비중이 매우 적었던 것으로 보아, 선집 과정에서 특정 기준에 부합하는 명나라 문인의 산문을 두루 선별하는 데 더 방점을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송고문을 중심으로 한 평정하고 전아한 문체를 가장 중시하여 우선적으로 선별한 반면, 조선 문인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파악되어 온 전후칠자에 대해서는 그들의 글 가운데 절박한 품격을 지닌 것들의 일부를 선별하였다고 밝혔으며 선별 순위 및 비중 또한 전자에 비해 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²⁶⁾ 또한 이전시기

24) 홍석주, 『淵泉先生文集』 권24, 「雜著[上]」, <選丙集小識>, “自北地 濟南兩李氏者作, 而文之變, 不可勝言矣. 然其一二能者之才之力, 亦足以馳騁, 自喜于一時. 雖不能追配古作者,(中略)而斯一二人者, 顧巍然爲數百年宗師, 此又所以蒙詬無窮也.(後略)”

25) 정민, 앞의 책, 87-88면.

26) 이외에도 연천은 명나라 글을 읽고 난 뒤 120운으로 시를 짓기도 할 정도로 명대 문단의 동향과 각 문인별 특징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상술한 소지와 마찬가지로 명대 산문에 대해 유파별로 나누고 있다(홍석주, 『淵泉先生文集』 권1, <讀明文一百二十韻>). 이 시는 120운 240여 구에 달하는 장편으로, 명초 송렴부터 명말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문인들의 이름과 그 문학적 특징이 5언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를 분석하면 현재 남아 있지 않은 『황명문선』 수록 작자의 얼개와 이를 바라보는 연천의 산문관을 보다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에 비해 선별된 명대 문인들의 명단이 크게 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서적들을 내가 모두 보지도 못하였고 모두를 베껴 쓸 수도 없기 때문에 우선 그 제목을 차례대로 나열하였다.”²⁷⁾라는 언급으로 보아 이 분류 작업에 개인문집 외에 산문선집이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앞선 택당과 농암의 경우에는 명대의 문학론이 거의 동시대 유행하던 문학론으로 인식될 여지가 있는 반면, 홍석주의 경우 이미 청의 문학론도 문단에 충분히 들어온 상황이었으므로, 명대 문단 내지 문학론은 이미 과거의 문학 유파 중 하나로서의 의미에 국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변별된다.²⁸⁾

그밖에, 연천의 외손인 眉山 韓章錫(1832~1894) 역시 직접 명대 산문을 선별하여 따로 선집을 만들 정도로 명대 산문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고 문단 동향에 대한 조예도 깊었다. 그는 〈明清三十四家文抄序〉와 〈明文續選序〉라는 글을 남기고 있는데, 두 선집의 실물은 아직 국내에서 확인된 바 없다. 먼저 〈명청삼십사가문초서〉에서는 명나라의 문장은 송나라의 글이 기가 약 해서 잘못된 폐단을 바로잡으려 했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경릉파의 종성이 선발한 명대 문인 가운데 10명에 관한 책을 읽고 이를 간략하게 추릴 필요성에 따라 선집을 하였음을 밝혔다. 또한 선대 문인들의 비평과 마찬가지로 전후칠자가 모방했던 선진양한에 대한 의고는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가려다 지엽적인 부분에 사로잡힌 폐단을 면치 못했다는 점, 근원을 상고하려다 송대 산문을 지나치게 가벼이 여겼다는 점 등을 단점으로 지적하고 있다.²⁹⁾

보이는바, 이에 대한 연구는 후고의 과제로 남겨둔다.

- 27) 홍석주, 『淵泉先生文集』 권24, 「雜著[上]」, 〈選皇明文小識〉, “凡爲人若干, 爲文若干, 選三月而略備, 以書籍之未悉顯也, 繕寫之無其具也, 姑第列其目。”
- 28) 이러한 자료들은 조선 후기 산문과 명·청 문학의 영향 관계를 살피는 논의에서 강조되는바, ‘진한고문파의 유행’, ‘개성 넘치는 글쓰기의 확산’과 같은 현상 외에, 조선과 중국 ‘양국’에서 ‘당대’에 주류를 이루었던 글쓰기와 문학론은 무엇인지를 보다 면밀하게 고찰해야 한다는 문제를 던져준다.
- 29) 韓章錫, 『眉山先生文集』 권7, 「序」, 〈明清三十四家文抄序〉, “皇明初興, 懲宋氏之弱而亡, 振肅紀綱, 力挽天下之風俗, 弘治、嘉靖之際, 俊髦鶴起, 文氣如林, 懲宋之弱, 起而振之, 寧玉而瑕, 毋石而璠, 琢字句鑄言辭, 媚韓、歐, 罵曾、蘇, 奮然自跨於先秦兩漢之列。李、何、王、李, 其尤用力者也。然六藝之旨已遠, 非先秦兩漢之文, 乃明氏之文也, 彼自以為潮流而獲源, 不知其猶墮於蹊也。清承其弊, 嚴其尺度, 不敢橫

〈明文續選序〉에서도 종성이 수집한 十家에 대한 미진함과 의심으로 직접 송렴, 방효유 등 유가의 글을 선별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특히 그 뜻의 원대함과 문장의 宏肆함, 기격의 花平함과 이치의 정밀함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니는 점³⁰⁾에서 역시 선대 문인들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보인다.

요컨대 이 장에서 파악한 조선 후기 문인들의 명대 산문에 대한 기본적 인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식에서 김창협, 홍석주 등으로 이어지는 조선 문단은 명대 산문에 대해 크게 두 가지 경향으로 파악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첫 번째는 송렴, 방효유 등으로 대표되는 理學家 혹은 臺閣派 문인들의 和平하고 中正한 氣格과 왕신중, 당순지, 귀유광을 중심으로 한 당송고문가 계열의 글이 가장 높이 평가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작가들의 개인 성향과도 관련이 되는 부분이나, 조선 후기까지도 그러한 인식이 일정하게 계승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전후칠자의 의고가 모방에 그칠 뿐 선진양한 고문의 정수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비판되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전후칠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의 경도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비슷한 시기에 조선에서 오랫동안 유행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되, 조선 후기의 산문사가 전후칠자에 대한 추종으로 일관되지만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공안파와 경릉파 문인에 대한 언급이나 비평은 그 비중이 매우 적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³¹⁾ 또한 홍석주와 한장석의 예에서 살필 수 있듯, 조선후기로 갈수록 언급되는 명대 문인의

軼，以規撫勝而桀驚雄深，多遜於明人，亦與政通焉。竟陵鍾惺選明文十家，歸安徐鳳輝選清文二十四家，余取讀而遴之，痛加刊櫛，合而成之，摠若干篇。”

30) 한장석, 『眉山先生文集』 권7, 「序」, 〈明文續選序〉.

31) 선행연구들에서 조선 후기 산문사를 파악함에 있어 소품문을 창작하는 특정 그룹이나 공안파 및 경릉파 등에 대해서만 지나치게 좁게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오히려 조선 후기 문단의 주류였던 인물들 사이에서는 공안파, 경릉파 등이 별로 부각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이에 대한 실증이 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또 한편으로 이러한 문장에 대한 선호는 儒學을 기반으로 하는 문인들이 기본적으로 당연시하며 지지하는 것이므로, 오히려 비중은 적지만 기재하고 작가적 개성이 높후한 작품에 주의를 기울이는 모습이 조선 후기 문단의 시대적 특징을 더 잘 보여주는 징후일 수 있다는 점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수가 점점 증가하는데, 이 과정에서 개인문집과 함께 명문선집이 널리 유통되고 적극적인 독서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후하다.

III. 『明文奇賞』의 유통

이 장에서는 조선 후기에 유통된 대표적 중국본 문장선집인 『명문기상』에 주목하여 그 편찬 동기, 체재 및 내용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명문선집의 구체적 존재를 소개함과 동시에 당시 조선 문인들의 명문선집 독서가 명대 산문에 대한 이해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주요 단서가 될 것이다.

1. 『명문기상』의 내용과 체제

『명문기상』의 편찬자는 陳仁錫(1581~1636)으로, 字는 明卿, 號는 芝臺이며 長洲 출신이다. 翰林編修官을 거쳐 日講官, 國子祭酒를 역임하였으며, 문집인 『無夢園集』을 남겼다.³²⁾ 진사과에 급제하고 난 뒤 당대의 문장이 衰靡한 문풍을 따르는 것에 개탄하여, 理學을 창도·천명하고자 하였으며, 평생 經術을 연구하는 데 전심하였다. 진인석은 옛 것을 좋아하고 박식하여 저서가 풍부하였다.³³⁾ 특히 그의 저서들 가운데 눈에 띠는 것은 ‘奇賞’ 시리즈라고 할 수 있는 총집류 저서들이다.³⁴⁾ 소식의 문집 가운데 時文의 모

32) 『御選明詩』〈姓名爵里 七〉; 『欽定大清一統志』 권56, 〈蘇州府 三〉; 『江南通志』 권165, 〈人物志〉, 〈文苑 一 江蘇二府〉 참조.

33) 『江南通志』 권165, 〈人物志〉, 〈文苑 一 江蘇二府〉

34) 선집명에 ‘奇賞’이라는 용어를 쓰는 사례는 진인석의 경우에서만 찾을 수 있었는데, 그 의미는 ‘妙處를 褒揚(贊賞)하다’, 혹은 ‘묘처를 완상하다’ 정도로 파악된다. 한편 진인석이 ‘奇’라는 품격을 기준으로 산문을 선별한 이유가 晚明시기 소품의 특질에서 비롯되었다는 견해가 있다. 歐明俊, 〈論晚明人的‘小品’觀〉, “奇，也是晚明小品的特質之一。晚明多奇人癖人，奇人出奇語，寫奇文，故論文，論文皆重‘奇’。奇卽新奇，怪奇，奇絕，超乎尋常，快人耳目心情。”列出陳仁錫編有 〈古文奇賞〉, 〈續古

범이 될 만한 글들을 문체별로 선별하고 거기에 批點을 가한 『蘇文奇賞』 50권, 屈原의 〈離騷〉에서부터 南宋의 文天祥(1236~1282), 그리고 문천상의 제자인 王炎午 등에 이르기까지 역대의 古文들을 시대의 편차에 따라 작가 별로 두루 채집한 『古文奇賞』과 그 속집인 『續古文奇賞』 34권, 『三續古文奇賞』 26권, 『四續古文奇賞』 53권, 마지막으로 『明文奇賞』 40권, 『古文彙編』 236권, 『續補文選纂注』 12권, 『諸子奇賞前集』 51권, 『諸子奇賞後集』 60권 등이 그것이다.

본고에서 주목하고 있는 『명문기상』은 명초 송렴이나 楊維楨과 같은 문인에서부터 명말의 陳勳, 王衡에 이르기까지 180여 명의 작가를 시대 순으로 선별하고, 그들의 산문 가운데 名文이라고 생각되는 글들을 문체별로 선발 수록한 뒤 진인석 자신의 비점과 세주를 가한 작가 중심의 문장선집이다. 진인석은 〈明文奇賞序〉³⁵⁾에서 이 선집을 엮은 목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예로부터 인문(人文)이 융성한 것은 본래 명나라보다 뛰어난 시기가 없다. 문성 公劉基이 출정(出征)을 전담한 것은 곧 침착하고도 굳세었고, 문헌公宋濂이 담론을 세운 것은 조화롭고도 우아했다. 일찍이 세력과 이익에 담박하지 않고 문장을 잘 할 수 있었던 사람은 없었으니, 바로 관직과 음직을 사양하고 세 번이나 (왕의) 행차가 그의 집에 이르렀으나 그 계책이 끝내 전해지지 못한 진정생陳遇선생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다. 또한 재주와 능력을 헤아려보지 않고 문장을 잘 할 수 있었던 사람도 없었으니, 홍무 연간에 고속군공에 봉해진 陶安은 (명 태조에게) “계책을 잘 세우는 사람은 문성공 유기이니 유아에 참여케 하시고, 나라의 영화를 오로지 지난 사람은 문헌공 송렴이니 유학을 총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리와 정사에 정밀한 사람은 장중승 등[章溢과 葉琛]이니 둔전을 관리하게 하십시오.”라고

文奇賞〉, 〈三續古文奇賞〉, 〈四續古文奇賞〉和 〈蘇文奇賞〉等書, 則歐氏視陳仁錫諸選評標準從‘奇’矣, 『文學遺產』, 1999, 63-73頁。

35) 진인석, 『無夢園遺集』 권2, 〈明文奇賞序〉, “自古人文之盛, 未有踰本朝者也。文成一出即沈毅, 文憲立談即雍雅, 盖未有不淡於勢利而能文章者, 於是, 有辭官辭廢, 三幸第, 而計劃秘不傳, 如陳靜誠先生, 又未有不量材度力而能文章者, 洪武以姑孰郡公安言, ‘長謀略則文成, 參帷幄, 擅國華則文憲, 總儒學, 精吏事則章中丞等, 司屯田.’ (中略) 士不立品, 才思索然, 文章千古, 寸心自知, 無人品, 則寸心安在, 誰與較失得哉? 才解大紳而歸之, 傳讀十年書, 肆有德有造, 士生其間, 不以定志立品, 為第一義, 豈不負遭遇哉?”

하였다. (중략) 선비가 品德을 배양하지 않는다면, 그 才思는 공허한 것일 뿐이다. (杜甫는) 문장이란 영원히 남길 가치가 담긴 일이고, 자신의 작은 마음寸心으로 그 문장의 得失를 절로 알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니 인품이 없다면 마음이랄 것이 어디에 있을 수 있겠으며, 또한 누구와 문장의 잘잘못을 비교할 수 있을 것인가? 재사가 뛰어났던 분이라면 바로 解縉을 들 수 있는데 그로 하여금 십년간 독서하게 하니 덕망과 조예를 모두 쌓을 수 있었다. 그러니 그 후에 태어난 선비들이 품덕을 배양하는 일에 전심하는 것을 급선무로 여기지 않는다면, 어찌 임금의 알아주심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겠는가?

먼저 진인석은 명대의 산문이 역대 산문 가운데 가장 융성하였다는 자부심을 표출하였다. 자기 시대의 문장이 최고라는 인식은 韓中을 막론하고 대각문학(관각문학)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이다. 특히 명초의 대신인 유기와 송렴을 필두로 명 태조를 도와 천하를 통일하는 데 공을 세운 진우, 도안, 해신 등을 집중 언급하였다. 이들은 모두 명초의 대표적인 經世家이자 대각체 문인들인데, 진인석이 서론 첫머리에 언급한 것으로 보아, 그가 『명문기상』을 편찬함에 있어 溫雅한 품격과 經世 혹은 持世의 내용을 담은 글을 가장 중시할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³⁶⁾ 또한 인품이 바탕이 된 문장을 고풍하되, 그것을 여러 선대 문인들의 글과 비교하여 자신의 문장의 잘잘못을 알아야 함을 역설하였다.

진인석은 계속해서 明 宣宗의 〈賜儒臣詩〉의 全文을 장황하게 인용하고 있다. 이 시에서 선종은 “우리 조정의 치화는 문교를 중시하니, 아침저녁으로 갈고 닦는 일을 어찌 그만두리오? 유자들의 지향은 동중서를 이어야하니, 어찌 그저 사마상여처럼 문채만을 일삼으리오?(朝廷治化重文教, 旦暮切磋安可無? 諸儒志續漢仲舒, 豈直文彩凌相如?)”라고 하였다. 이는 곧 유자들에게 부지런히 독서하여 서로 면려하고 자신의 정사를 도와 요순의 至治를 이루자는 격려를 전하는 내용이다. 진인석은 명나라의 문치 숭상의 기치가 이와 같이 융성하므로, 선비들이 독서하여 왕화를 보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명초 선조들이 갈고 닦은 조예와 성취가 지금까지 전달되어

36) 선행연구에서도 진인석이 한림에 오래 재직하였기 때문에 대각문학의 전통을 잘 계승하였으며, 유기와 송렴의 작품을 특히 추승하였음을 지적하였다. 陳煒舜, 「陳仁錫及其〈楚辭〉眉批考探」, 『中國文化研究所學報』54, 2012, 204頁.

여러 문인가들이 배출될 수 있었다고 보았다. 그런데 그 시기가 오래되어 훌륭한 문장과 서적이 일실되는 경우가 생기므로, 前賢들의 遺稿 가운데 취 사선택을 하고 자신의 비평을 달아 이 책을 출간하였다는 것이다. 나아가 진인석은 『명문기상』을 통해 독자들이 웅대한 재사가 담긴 글, 세리에 담담한 글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드러냈다.³⁷⁾

진인석의 서문은 『명문기상』에 수록된 작품들이 단순히 문채가 아름답거나 시대를 분식하는 글이 아니라, 한나라 동중서의 사례처럼 경세와 儒術에 보탬이 되는 문장을 위주로 선발된 것임을 미루어 짐작하게 한다. 또한 명나라의 문치 숭상이 융성하므로, 사대부 독자들이 이 선집에 수록된 명대 문사들의 모범적인 글을 읽음으로써 조정의 문교정책에 부응하고, 자신의 재주와 기량을 확인하고 비교하며, 나아가 세교에 도움이 되는 문장을 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명문기상』이 후대의 사대부들이 인격과 문장력을 아울러 닦을 수 있는 토대가 되기를 바라는 뜻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한편, 서문의 말미에서 진인석은 명 태조가 비판한 바 있는 陶凱와 茹太素의 잘못된 글쓰기에 대해 언급한다. 도개는 고관대작에 올랐지만, 山林을 지향하는 지취의 글쓰기가 가득하였기에 명실이 상부하지 않다고 태조로부터 비판을 받은 인물이다.³⁸⁾ 여태소는 17000여 자에 이르는 긴 상소문을 올렸는데, 태조가 6370자까지 읽었는데도 구체적 내용을 찾을 수 없자 그를 불러다 매질을 하고 500자면 충분한 글쓰기였다고 비판하며, 그 뒤 천하에 번잡한 글쓰기를 지양하라는 내용을 頒示했다는 일화로 유명하다.³⁹⁾ 진인석

37) 진인석, 『無夢園遺集』 권2, 〈명문기상서〉, “嗟乎！右文之隆至此，士柰何不讀書？列聖追琢造就，至於今，薰習雅化作者輩出，輒惟嘉隆以來，一家之言最盛，邇而上之，成弘洪永，高文典冊，若存若亡，豈非缺事？爰取往喆遺稿，詮次臆評，續編再出，讀者，雄於才思，澹於勢利，可遙集之一堂也。”

38) 『明太祖文集』 권16, 〈設大官畢職館閱山林辯〉

39) 진인석, 『無夢園遺集』 권2, 〈명문기상서〉, “洪武九年，災異求言，刑部主事茹太素上五事，盈一萬七千字。初命中書郎中，王敏誦至六千三百七十有云：“所任者半，迂儒俗吏。”召分迂俗，不對打之。次日上又令誦其言，至一萬六千五百，方見五事，字僅五百，當日歎曰：“爲臣不易，茹太素是也。””

은 이 일화를 제시한 뒤, 도개나 여태소처럼 지나치게 고원한 뜻만 지향하거나 독자가 이해할 수 없는 불필요하고 불명료한 글을 쓰는 자들이 많아 요즘 문장이 조리를 잃고, 모호하여 실제가 없다고 비판하였다.⁴⁰⁾

그러한 기준에 따라 수많은 문장가가 배출된 명대 문단의 산문 자료를 종체적으로 정리하고 제시하려는 진인석의 목적의식은 문선집 간행의 일차적 목적에 충실하려는 것으로 보인다.⁴¹⁾ 즉, 『명문기상』은 당대의 문풍을 일괄적으로 정리하려는 1차적 목적과, 사대부 독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사유를 가다듬고, 문장으로 정갈하게 표출하는 방법을 배우고 비교할 수 있는 학습서로서의 기능을 염두에 두고 편찬된 문선집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 선집체제가 시대별 작가 순을 따른다는 점도 특징이다. 각 권별로 수록된 작가와 문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괄호 안: 수록 장르 및 편수).

권1: 宋濂(序32)

권2: 宋濂(賦1, 頌5, 記14, 銘3)

권3: 宋濂(傳7, 題16, 跋12, 碑6)

권4: 宋濂(議2, 論1, 賛1, 說3, 檄1, 志1, 雜著8)

楊維楨(傳1, 志1) 王禕(詔1, 起1)

권5: 劉基(頌表3, 序6, 記7, 說3, 解1, 對1, 跋5, 連珠1, 郁離子12)

권6: 解縉(應製古詩10, 表1, 疏2, 序17, 記8)

권7: 解縉(文1, 跋2, 傳6, 賛5, 行狀1, 墓表6, 誌銘10, 雜述2)

권8: 方孝孺(雜著34, 記4)

권9: 方孝孺(文2, 賛39, 序4, 書10, 傳1, 題跋9, 墓誌1, 銘1, 祭文6)

권10: 蘇伯衡(雜著2, 序1, 跋1)

高啓(論1, 序1, 賛1, 露布1, 雜著1)

王叔英(序1)

林右(序1)

烏斯道(傳1)

張孟兼(傳1)

朱睦模(傳1)

唐肅(序1)

40) 진인석, 『無夢園遺集』 권2, 〈명문기상서〉, “今天下之文，稱謂失倫 漫漶不實，唐參政茹比部不少矣。噫！讀有用之書，遵當代之式，可與細論文哉。”

41) 문선집은 기존자료의 종체적 정리와 제시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문학의 내밀한 성찰작업으로서, 문학을 정화하는 문학행위의 중요한 형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選文學은 그 시대 문화유산의 대표적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김종철, 「『東文選』 편찬체제의 選文學的 類型性과 그 의미」, 〈19세기 한국한문학의 諸樣相 학술발표 대회〉, 우리한문학회, 동방한문학회, 2003, 1면.

- | | | |
|---|------------------------|---------------------|
| 楊溥(記1) | 周忱(記1, 書1) | 李時勉(序1) |
| 薛瑄(疏1, 說1) | 于謙(疏5) | |
| 권11: 楊士奇(序6, 跋1, 記3, 題跋5) | | |
| 劉球(記1) | 李賢(碑銘1) | |
| 劉定之(疏 1, 議 1, 論3, 序1, 贊1) | | |
| 章綸(疏1) | 韓雍(疏1) | 陳獻章(傳1, 文1) |
| 권12: 羅倫(記1, 疏1, 論1, 序1) | | |
| 商輅(疏3, 啓 2, 雜著 2, 祭文1) | | |
| 王恕(疏1) | 馬文升(疏 1) | 楊守陳(序2) |
| 何喬新(書1) | 丘濬(論1) | 劉健(疏1) |
| 李東陽(疏1) | 劉大夏(疏1) | 程敏政(傳1, 辨 1, 致語 1) |
| 권13: 楊一清(疏1) | 韓文(疏1) | 吳寬(記2) |
| 楊廷和(疏3) | 王鏊(勅1, 疏1, 傳錄1, 記2) | |
| 林俊(疏2) | 文林(書3) | 蔡羽(記3) |
| 권14: 王守仁(書13, 雜著 3, 序1, 祭文1, 疏6) | | |
| 권15: 楊循吉(書1, 論1, 序3) | | 錢福(序1, 文1, 贊1, 碑記1) |
| 顧璣(序1) | 徐禎卿(論1, 書3) | 康海(序1, 策1, 書2) |
| 何景明(序3, 記1, 書1) | | |
| 권16: 李夢陽(序7, 書2, 記1, 傳2, 碑7, 墓誌銘3, 辨1, 行狀1, 文1) | | |
| 권17: 羅玘(序4, 傳1) | 董玘(序1) | 敖英(記1) |
| 王時槐(傳2) | 霍韜(疏2, 傳1, 記1, 序2, 書2) | |
| 鄭守益(墓誌1) | 孫懋(疏1) | 胡世寧(疏1) |
| 唐皇(疏1) | 魏校(序1) | |
| 권18: 崔銑(序3, 論1, 傳2, 述1, 書1) | | 舒芬(記1) |
| 江暉(序1) | 王廷陳(書1) | 黃佐(傳1) |
| 鄭善夫(疏1, 傳1, 書1) | 寥道南(疏1) | |
| 文徵明(序1, 書1) | 唐寅(序1) | 祝允明(傳1, 雜著1) |
| 張靈(論1) | 桑悅(記1) | 唐龍(序1) |
| 王寵(序1) | 楊爵(傳2) | |
| 권19: 張含(說1) | 翁萬達(序1) | 徐階(墓志 1) |
| 金繼輝(書2) | 鄭曉(論1, 序5) | 雷禮(傳1) |
| 王慎中(序6, 記4, 墓表 1) | | |
| 권20: 呂柟(序1) | 趙時春(序2) | |
| 陸粲(序1, 題1, 贊1) | 朱紈(序1, 紀事1, 辭1) | |
| 羅洪先(序2) | 熊過(序2, 書1) | 楊博(疏1, 序1) |
| 田汝成(傳1, 書1) | 何良俊(序1) | 黃省曾(書1) |
| 권21: 楊慎(序7, 記4, 論3, 辨1, 閒書1, 書1, 跋3, 傳2, 雜著43) | | |
| 권22: 楊慎(雜著78) | | |

- 권23: 張孚敬(疏10) 林大欽(策1) 袁袞(序2, 書2)
葉式(序1) 楊名(雜著1)
- 권24: 夏言(評1, 疏1, 表1, 論1) 王維禎(序10, 書9, 跋1) 陸樹聲(文1, 碑1)
- 권25: 高拱(文1, 疏5, 書6) 趙貞吉(疏2, 序4, 傳1, 書4, 碑1) 殷士儋(序1)
- 권26: 唐順之(書3, 序5) 劉繪(書1) 侯一元(序2) 徐渭(表2, 啓5, 論2, 序4, 跋6, 書1, 雜著3, 祭文4, 墓誌銘1)
- 권27: 陳束(碑1, 書1) 董份(論1, 記1, 序2) 茅坤(書2, 碑1) 海瑞(疏1, 傳1)
皇甫濂(書1) 皇甫汸(論2, 序2, 碑1, 對1)
- 권28: 楊繼盛(書3, 疏1, 序2, 雜著2, 祭文1) 沈鍊(疏1, 序1)
郭希顏(疏1) 余文獻(序2) 宗臣(書3, 記3, 雜著2)
- 권29: 李攀龍(記2, 論1, 序10, 書7, 解1, 引1, 傳2, 墓誌銘1, 雜著3)
袁洪愈(疏1)
- 권30: 劉鳳(序17, 書擬1, 記5, 雜文1, 說1, 規2, 表1, 書1, 論1)
- 권31: 王世貞(論1, 傳2, 序14, 贊3, 辨2, 啓1, 書1)
- 권32: 汪道昆(序12, 論1, 傳2, 紀1, 碑記1, 碑1) 羅柟(記1) 張邦奇(文1) 李元陽(墓誌2)
萬恭(序1) 徐栻(序1) 吳國倫(傳2, 序2, 書1)
歸有光(傳1, 序3, 行狀1) 文元發(序1)
耿定向(傳1) 殷雲霄(傳1) 張治(序1)
支大綸(記1, 序1, 揭1) 錢一本(序2)
- 권34: 張居正(序4, 傳1, 摬書1, 雜著7, 表2, 疏9, 書6)
- 권35: 張居正(書64) 申時行(序1) 余有丁(序1)
- 권36: 王錫爵(序5, 祭文3, 書52) 詹仰庇(疏1) 許國(序1) 張位(碑1)
沈一貫(記1, 序1) 于慎行(序1) 王家屏(疏3)
郭子章(論1) 管志道(序1)
- 권37: 余寅(序2) 趙用賢(疏1, 序1, 書3) 馮時可(傳1) 孫鑛(序1, 書1) 屠隆(記3, 書1, 雜著2)
張鳳翼(傳1) 張獻翼(雜著1) 宋儀望(序1)
王稈登(傳1) 歸子慕(序1, 傳1, 儀1)
- 권38: 馮琦(序7, 疏3, 議1, 書4, 碑記2)
- 권39: 湯顯祖(序7, 題辭1, 書14) 張棟(疏1)
伍袁萃(疏1, 祭文1, 書1) 顧憲戎(論1)
陳子貞(疏1) 郭正域(墓誌1) 徐應雷(論4)
- 권40: 袁宗道(評1) 陶望齡(策1, 記11, 序6, 題跋2, 篆3, 辨1)

黃輝(序2, 詞1, 題1, 銘1)

許猶(論1, 書1)

袁宏道(序2)

王衡(記2)

이 가운데 10편 이상의 작품이 실린 문인들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수록순위	수록 작품수	성명	수록순위	수록 작품수	성명
1	143	楊慎	11	27	李夢陽
2	113	宋濂	12	24	王守仁
3	110	方孝孺	13	24	王世貞
4	61	解縉	14	24	陶望齡
5	60	王錫爵	15	22	湯顯祖
6	39	劉基	16	20	王維禎
7	30	張居正	17	18	汪道昆
8	30	劉鳳	18	17	馮琦
9	28	徐渭	19	15	楊士奇
10	28	李攀龍	20	12	高拱, 趙貞吉

이외에 왕신중이 11편으로, 180여 명의 수록 작가 가운데 총 21명의 작가가 10편 이상 수록되어 있다. 가장 많은 작품이 실린 문인은 양신(143편), 송렴(113편), 방효유(110편)이다. 특히 60편 이상이 실린 문인들은 대부분 홍석주가 『갑집』에 선별한 인물들이며, 經學에 탁월한 이학가 혹은 학자를 중심으로 한 대각과 문인들이 가장 많이 선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전후칠 자의 글은 각각 20편 내외가 실려 있다. 의외로 당송파 문인인 귀유광, 모곤, 당순지는 매우 적은 수의 글이 수록되어 있으며, 공안파 및 경릉파의 글 역시 선별은 되어 있으되 그 수가 매우 미미한 것이 특징이다.

이처럼 『명문기상』은 패관소품처럼 작가적 개성이 농후하게 발휘되거나

기쾌함을 특징으로 하는 산문보다는, 전아하고 장중한 풍격의 대각문학, 학자적 여유를 드러내는 온유돈후한 글, 간략하면서도 표현이 분명한 글을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⁴²⁾ 아울러 2장에서 살펴본바, 조선후기의 유력 문인들이 파악하고 있는 명대 산문 유파 가운데 가장 중시된 경향의 글이 명문선집에도 동일하게 강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 선집에 28편이 수록된 徐渭나 楊慎은 조선 문단에서 그 문집 열독이 흔적이 각각 이덕무의 『청장관전서』, 이익의 『성호사설』에 보이는바 18세기 후반이 되어서야 그 개별 문집이 수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개별 문집이 조선에 수용되기에 앞서 명문선집에 수록된 글을 통해 조선 중·후기의 문인이 이미 특정 문인의 글의 일부를 미리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가장 많이 선발된 문체로는 序와 雜著 등을 들 수 있는데, 특히 서는 해당 문인의 문학관을 드러내기에 가장 유용하고 효과적인 문체라는 점에서 많은 수가 선발되었다고 짐작할 수 있다. 『명문기상』은 현재 중국에는 內蒙

42) 『명문기상』과 함께 거칠의 명문선집인 『明文英華』(顧有孝 編, 119인 301편 수록)를 살펴보아도 이러한 경향이 확인된다.

권1(21편) 宋濂, 劉基, 劉崧

권2(20편) 高啓, 趙汎, 王棹, 蘇伯衡, 張孟兼, 徐一夔, 張以寧, 唐肅, 王元采, 高棟, 王紳

권3(34편) 方孝孺, 朱夏, 林環, 楊士奇, 楊榮, 王直, 貝瓈, 胡翰, 胡儼, 胡廣, 吳訥, 梁潛, 薛瑄, 林誌

권4(61편) 李賢, 劉夏, 王達, 徐有貞, 張弼, 商輅, 陳敬宗, 羅倫, 王鏊, 李東陽, 韓雍, 邵寶, 謝鐸, 吳寬, 馬中錫, 楊循吉, 劉節, 陸容, 桑悅, 羅玘, 唐龍, 崔銑, 費宏, 劉玉, 費宋, 潘壘, 顧璘, 祝允明

권5(16편) 李夢陽, 何景明, 程敏政, 文徵明, 唐寅, 張邦奇, 許相卿

권6(27편) 徐頤卿, 王守仁, 魏校, 霍韜, 楊慎, 皇甫汸, 王廷相, 黃省曾, 何喬新, 豊坊, 徐階, 吳鼎, 董玘

권7(28편) 王慎中, 羅洪先, 鄭守益, 周思兼, 鄭曉, 唐順之, 茅坤, 歸有光

권8(13편) 宗臣, 王世貞

권9(28편) 吳桂芳, 鄭守愚, 錢琦, 張居正, 劉鳳, 莫如忠, 田汝成, 申時行, 陸師道, 耿定向, 馮時可, 張椿, 王暉登, 支大綸, 焦竑, 董其昌, 陶望齡, 魏濬, 顧起元

권10(43편) 文震孟, 錢謙益, 顧大韶, 陳子龍, 夏允彝, 黃淳耀, 陳弘緒, 侯方域, 顧炎武, 朱鶴齡, 黃宗羲, 潘樞章, 葛芝.

古線裝古籍聯合, 中國國家圖書館, 中研院傅斯年圖書館, 哈佛大學哈佛燕京圖書館 등 10여 곳에, 일본에는 동경대학교 등에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⁴³⁾

2. 조선에 유통된 『명문기상』

다음으로는 조선에 유통된 『명문기상』에는 어떤 판본이 있는지, 현전하는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조선에 유통된 『명문기상』의 판본에 대한 고찰은 그 서적을 접한 사람이 누구이며, 그것을 어떻게 수용하였는지를 살펴보기에 앞서 진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를 소장처와 권책수 등을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표로 정리하였다.

소장처	권책수	참고사항
奎章閣	21冊(卷1, 3-7, 14, 15, 18-20, 31-33, 37, 38 (8冊)缺)	印: 弘文館, 帝室圖書之章 명대 목판본으로 추정.
奎章閣	40卷 16冊	印: 集玉齋, 帝室圖書之章 등 序: 天啓3年(1623) 〈明文奇賞續集〉述引: 沈國元
국립중앙도서관	40卷 4冊	序: 天啓癸亥(1623) 명대 목판본으로 추정됨. 印記: 播赤松鴻字國鸞珍藏書畫印
단국대학교 퇴계기념도서관	40卷 40冊	명대 목판본으로 추정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40卷 20冊	序: 天啓癸亥(1623) 印: 李王家圖書之章
한양대학교 백남학술정보관	2卷1冊 (全40卷20冊 中 제15冊)	序: 天啓癸亥(1623)

43) 中文古籍書目資料庫 참고.

소장처	권책수	참고사항
한양대학교 백남학술정보관	40卷20冊	序: 天啓癸亥(1623)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40卷20冊	表題: 古文奇賞 木板本(淸) 序: 天啓癸亥(1623)

이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국내에 유통된 『명문기상』은 그 책수는 다르지만 공히 40권이다. 규장각에 소장된 『명문기상』은 중국본과 동일 판본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다른 본들은 실물을 미쳐 확인하지 못하였다. 현전하는 『명문기상』에 대부분 1623년(명 말기)의 서문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당대에 통행되던 본이 일정한 시기가 지난 뒤 연행 등의 경로로 국내에 유입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관련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다. 또한 규장각에 소장된 완질 『명문기상』은 『명문기상속집』에 대한 심국원의 引이 부기된 것으로 보아 1623년대에 처음 간행된 이후의 再刊本일 가능성이 있어 주목을 요한다.

현전하는 『명문기상』의 소장처가 국내에 이처럼 많다는 점은 조선 후기에 『명문기상』이 널리 유통되었다는 사실의 방증이다. 특히 『명문기상』 권 19에는 독특하게도 1581년 奏請使로 명나라에 사신을 갔던 金繼輝(1526~1582)의 書 2편⁴⁴⁾이 실려 있는데, 이런 이유로 다른 명문선집에 비해 일찍부터 우리나라 문인들의 관심을 받았던 것 같다. 관련 내용이 이의현의 〈운곡만필〉과 〈도협총설〉에도 언급되어 있으며, 조선 후기 대표적 남인 계열 문인인 姜世晃(1713~1791) 역시 『명문기상』에 실린 우리나라 문인의 글에 주목한바 있다.⁴⁵⁾

44) 〈上宗伯書〉, 〈又〉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45) 강세황, 『豹菴稿』, 〈書于寫明文奇賞卷下〉, “右上宗伯書二首，上一首爲崔簡易^豈代撰，下一首爲高齋峰敬命代撰，載於明人陳仁錫明卿明文奇賞。吾東之詩，載於華人詩選中亦多矣。至若錢牧齋列朝詩集，載東詩至二十人之多，而惟文則未嘗有焉。今此二首獲載于此，且有其詞古雅之評點闕錯落，爲中華作者所賞歎若此，亦云幸矣。土之生於吾東者，率多苟簡魯莽，或有業文辭者，不過汨沒於科場賦表之技，至若文辭一道，

그밖에 이재 황윤석의 『이재난고』 1778년 음력 4월 13일자 일기에 자신이 『명문기상』을 소장하고 있었다는 내용이 있으며, 유만주의 『欽英』⁴⁶⁾에도 『명문기상』 20책을 열람해 보았는데, 친계 계해년에 진인석이 평선한 것이다.(閔明文奇賞二十冊, 天啓癸亥陳仁錫評選)라는 기록이 남아 있다. 또한 이 용휴는 『탄만집』〈題花庵花木品第後〉에서 송대 鍾嶸이 편찬한 『시품』과 함께 『명문기상』을 언급하고 있는데, 시문을 감식하고 품평한 것이 정밀하다고 여겼으나 사람들 마음에 차지 않는 것도 있었다고 하였다.⁴⁷⁾

요컨대, 『명문기상』은 작가 중심의 선문관을 보이고 있으며, 각 작가의 글 가운데 문체별로 주요 작품을 선발하는 심층적 선문관도 확인할 수 있다.⁴⁸⁾ 이를 통해 진인석이 명대 산문의 종합을 도모했던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그 서문에서 유추할 수 있듯, 단순히 문학사적 성과를 집결시키는 성격의 선집을 넘어서서 문단의 동향은 물론 경세의 문장을 공부하는 일종의 ‘학습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물론 『명문기상』은 버리고 취할 바를 대부분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으며, 널리 채록하는 데[博] 힘쓴 나머지, 정밀하지 못한 흠을 가졌다는 평을 받았다. 또한 品類를 나누는 것을 좋아하되 일정한 체제가 없어서[無緝], 지나치게 번다하고 잡되다는 평을 면하기 어렵다고 평가절하 되기도 하였다.⁴⁹⁾ 그

視之爲無用。雖間有超拔之才，未嘗留心而學習，毋怪乎人才之日下而文風之不振也。余偶閱明文奇賞，手錄此二首。深慨夫今之世，無復有能作是文者，且以見昔人之能勉力文章，華國而垂後若此也。” 이 글에서 표암은 『명문기상』 가운데에 수록된 우리나라 문인의 글, 이에 대한 진인석의 평비를 바탕으로 ‘以文華國’의 목적의식이나 사명감이 없는 당대 문인들의 글쓰기에 대해 비판을 하고 있다. 명대 문단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총집으로서의 『명문기상』에 주목하기보다는, 중국 문헌에 수록된 우리나라 문인들의 시의 편린을 찾고 이를 통해 우리 문학의 장처를 재인식하고, 자부심을 고취하려는 조선 후기의 문학적·학문적 동향 및 관심과도 일치하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46) 『홍영』 제9책, 1780년(庚子年) 음력 2월 14일(癸亥)조.

47) “若鍾記室之評詩，陳太史之選文，自以為品藻甚精，而間或有不滿人意者。”

48) 물론 解緝의 경우처럼 ‘應製古詩’ 10수가 실리는 등, 매우 정밀한 선집안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만은 없다.

49) 『欽定四庫全書總目』 권193, [集部 四十六], 〈總集類存目 三〉 세주 참조. “去取亦多未審，蓋務博而不精，好分流品而無緝，悉不免冗雜之失云。”

럼에도 불구하고 명·청대 유명 문인들이 편집한 각종 시선집들이 이미 조선 후기에 널리 읽히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종류는 비록 시선집보다 적으나 명문선집의 존재와 閱讀의 흔적 역시 분명히 찾을 수 있으며, 이는 명대 문단의 개괄적 상황과 흐름을 폭넓게 파악하고자 했던 조선 후기 문인들의 적극적 노력과 문예적 욕구를 방증하는 주요한 자료라고 생각된다. 또한 180여 명이 넘는 문인들이 수록된 명문선집에 대한 독서는 명대 문단의 상황을 통시적 맥락에서 이해하게 하는 일종의 인덱스(index)로서 조선 후기 독자들에게 어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독자들은 그 가운데 자신의 취향이나 문장관과 일치하는 작품을 선택적으로 독서함으로써, 명대 산문을 평가하는 좀 더 깊은 안목을 기를 수 있었을 것이다.⁵⁰⁾

IV. 『明文奇賞』의 수용과 명대 산문 인식의 관련 양상

앞에서 살펴보았듯, 『명문기상』은 조선문인들이 명대 산문의 동향을 파악하는 데 활용된 중요한 자료로, 조선에서 적지 않게 읽혔을 것으로 보인다. 『명문기상』이 조선에 유입된 시기는 관련 자료가 부족하여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유입된 이후 어떠한 독자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읽히고 수용되었는지에 대한 몇몇 기록이 남아 있어 그 대략적 수용 양상을 유추할 수 있다. 『명문기상』에 주로 수록된 문인들의 글쓰기 경향은 조선 후기에도 유사하게 강조되고 있었으며, 이를 유파별로 분류하여 명대 산문을 이해하고자 하는 시각이 강하게 드러났다. 이 장에서는 조선 후기 문인들에게 『명문기상』이 열독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기록을 중심으로 『명문기상』의 수용이

50) 『명문기상』 이외에도 중국 黃宗羲라는 문인이 문체별로 명대 문인들의 글을 평선 해 놓은 23책의 『明文授讀』, 방효유 등 명대 11가의 문집을 모아놓은 『명십일가 문선』, 『명문기상』의 편제를 본 따 顧有孝라는 문인이 편찬한 10권 10책의 『明文英華』 등은 현재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연구 역시 전무한 실정이다. 『皇明文抄』도 국립중앙도서관 등지에 소장되어 있으며, 이 외에도 몇 종의 명문선집이 더 전하고 있다. 조선 후기 문단의 실황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앞으로 명문선집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

명대 산문에 대한 이해를 예각화하는 데 어떠한 도움을 주고 있는지 고찰하겠다.

1. 18세기 초 명대 산문의 총체적 동향 파악: 이의현

『명문기상』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서론에 언급한 바, 李宜顯(1669~1745)의 〈陶峽叢說〉(『陶谷集』 권28)이다.

명나라 문장을 초집하여 한 서적으로 만든 것으로 진인석의 『명문기상』을 들 수 있다. 이 책은 가장 큰 규모의 저서이다. 또한 『황명십대가문선』, 『명문영화』 등이 있는데, 이것은 한 시대의 창작 전체를 고찰하기에는 부족하다. 『명문기상』에는 우리나라 사신이 쓴 〈상종백서〉 두 개가 실려 있는데, 모두 종계변무에 대한 일이다.⁵¹⁾

이의현은 조선후기의 문신으로 김창협의 문인이다. 그는 17세기 후반 전통적인 서인 노론 가문에서 태어나고 수학하였으며, 영조조에는 제3대 文衡을 지내고 뒤이어 영의정에까지 오른 인물이다. 문형과 영의정을 모두 지낸 점을 고려할 때, 학문과 정치 양 국면에서 그가 끼친 영향력은 결코 작지 않다.⁵²⁾ 이의현의 산문비평과 관련한 내용은 〈雲陽漫錄〉(『도곡집』 권27)과 〈도협총설〉에서 주로 찾아볼 수 있다. 이 가운데 〈도협총설〉은 이의현이 59세 되던 해(1727년), 정미환국으로 인해 파직된 뒤 경기도 양주에서 지낼 때 기록한 글들을 1736년에 刪定한 것으로서, 자신이 읽었던 각종 서적에 대한 논설과 산문 비평관을 담고 있다. 특히 여기에 宋·元·明·清代의 문학에 대한 논평이 담겨 있어, 이를 통해 이의현 산문비평의 전반적 내용을 유추할 수 있다.⁵³⁾ 인용한 글에는 조선에 유통되었거나, 혹은 이의현이 개

51) 이의현, 『도곡집』 권28, 〈도협총설〉, “明文之抄輯爲一書者，有陳仁錫明文奇賞，此最爲大書。又有十大家文選、明文英華，此則略些，不足考覽一代制作矣。奇賞，載我國使臣上宗伯二書，皆宗系辨謹事也。”

52) 민복기, 「도곡 이의현의 반의고적 산문비평」, 『동양한문학연구』 25집, 동양한문학회, 2007, 104면.

53) 민복기, 위의 논문, 105-106면 참조.

인적으로 알고 있었던 명나라 문장선집 세 종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가운데 『명문기상』이 제일 거칠임을 최초로 언급하였다.

세상에 유통되는 명나라 문집은 거의 한우충동이라 모두 논할 수는 없지만, 대략 네 개의 유파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우리 집에 소장하고 있는 책을 가지고 말하자면, ① 방효유, 유기, 송렴은 의리의 학술을 문사로 드러낸 사람들이다. 이들을 하나의 유파로 나눌 수 있다. 방효유는 더욱 기세가 시원스럽고 낙관하여 명나라 300년의 문장가들 가운데 절대 이 경지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송렴은 그 다음이며, 유기도 송렴과 필적할만하다. ② 왕수인과 陳獻章은 이단의 학으로 글을 지었다. 왕수인의 글은 매우 상쾌하다. 그의 새로운 학문은 배척해야 마땅하지만, 그의 글에는 본받을만한 점이 있으니, 이탁오의 기궤함은 왕양명을 경유하여 거기에서 뛰어올라 더욱 제멋대로 날뛰는 자이다. 이 세 사람을 하나의 유파로 묶을 수 있다. ③ 이동양, 하경명, 왕세정, 이반룡은 선진제자를 배워 법고장신 하려 한 사람들이니 이들도 마땅히 한 유파로 묶어야 한다. ④ 모곤, 당순지, 양신, 귀유광, 전겸익은 고문을 배웠으나 표현이 걸끄럽지는 않아 너무 심한 경우가 되지는 않았다. 그 가운데 양신의 화려하고 여유로움과 전겸익의 넘쳐흐름은 그 본색에서 다소 벗어나있다. 그러므로 마땅히 이 유파에 속해야지 왕세정, 이반룡의 유파에 넣을 수 없다. 서위와 원평도는 또한 곁에서 나와서 총명하고 위트 있는 글이 장점이니, 이 두 사람도 역시 왕세정과 이반룡의 파에 넣어서는 안 되고 마땅히 이 유파에 포함시켜야 한다. ⑤ 이동양, 장거정, 葉向高는 조정에서 경제하는 글을 지었으니 또한 마땅히 하나의 유파를 이룰 수 있다. 이동양의 풍부하고 박식함은 역시 문인의 종주라고 할 수 있다. 그 외에 허국, 근학안, 왕형 같은 사람들은 미미하여 자세히 논할만한 인물은 아니다.⁵⁴⁾

『명문기상』을 언급한 다음 단락에서 이의현은 명대 문단을 크게 두 개의 유파로 나누던 선대 문인들과 달리, 모두 다섯 가지의 유파로 분류하여 이

54) 이의현, 『도곡집』 권28, 〈도협총설〉, “明文集行世者，幾乎充棟汗牛，不可殫論，而大約有四派。姑就余家藏而言之，方遜志、劉誠意、宋潛溪，以義理學術，發爲文詞者也，此爲一派。遜志尤滂沛浩瀚，有明三百年文章，絕無及此者。潛溪其亞，而誠意又潛溪之匹也。陽明、白沙，以異學爲文，而陽明之文尤爽，新學則當斥，而文則可取。以至李卓吾之詭怪，由陽明而騰上益肆者也，此三集當爲一派。空同、大復、弇州、滄溟，學先秦諸子而創爲新格者也，此當爲一派。鹿門、荊川、升菴、震川、牧齋，學古而語頗馴，不爲已甚者也。就中升菴之麗縵，牧齋之蕩溢，稍離本色，而故當屬之於此，不可爲王、李之派。徐文長、袁中郎，又旁出而以慧利爲長，此二人亦不可爲王、李派，當附入於此派。李西涯、張太岳、葉蒼霞爲廊廟經世之文，又當爲一派。而西涯之富博，亦可爲詞人之宗矣。他如許文穆國、靳兩城學韻、王縱山衡，瑣瑣不足言。”

해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첫 번째 유파는 송렴·방효유·유기로 대표되는 명초 대각체 문인이자 이학가 계열이다. 두 번째 유파는 왕수인·진현장을 중심으로 한 양명학자 계열로서, 그 끝에 이탁오를 두고 있는 것이 독특하다. 이의현 역시 양명학으로 인해 조선 내에서 강력한 비판과 배척을 받았던 왕수인과 진현장에 대해 문장과 인품을 분리하여 평가하는 객관적 인식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스승 김창협의 의식을 일정 부분 계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유파는 선진양한 고문으로의 복귀를 주장한 전후칠자이다. 그런데 이의현은 다른 문인들처럼 이들이 선진고문에 대한 단순한 모방을 꾀했다고 비판하는 것을 넘어, 비교적 공평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법고창신을 하려 했다는 의의를 인정하고 있다. 네 번째 유파로 당송고문파를 들 수 있다. 당송고문파는 선진고문으로의 복귀를 주장하던 의고파와 마찬가지로 고문을 지향하기는 하였으나 그 표현이 익색하거나 난삽하지는 않고 순박했다고 평가했다. 특이한 점은 서위와 원굉도를 이 유파에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서위와 원굉도는 패사소품의 대가인데, 이의현은 이들의 반짝반짝한 위트 중심의 문학[慧利]이 장점이라고 보았다. 이들은 李贊와 함께 공안파, 경릉파 등으로 분류되었으나 이의현은 이들과 이지는 같은 경향을 보이지 않는다고 파악한 것이 다른 문인들의 분류와 변별되는 점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유파는 經世家 계열이다. 이동양 역시 일반적으로는 전후칠자로 분류되는 데 반해 이의현은 이동양을 경세의 문장가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현은 두 개 내지 세 개의 유파로 분류하여 이해하던 명대 산문에 대해 보다 예각화된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이의현은 『명문기상』 등 명문선집을 통해 명대 산문 동향을 총체적으로 파악한 뒤, 그 안에서 다섯 개의 층위를 재발견하고, 각각의 층위에 맞는 문인들을 재배열하고 있다.

2. 18세기 후반 명대 산문에 대한 객관적 이해: 이종휘, 조인영

『명문기상』에 대한 기록을 남긴 문인 가운데, 가장 적극적인 독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자는 바로 조선 후기 소론계열의 양명학자인 李種徽(1731~

1797)이다. 이종휘는 『명문기상』의 後序를 자신의 문집에 남기기도 했고, 이를 재가공하여 2책으로 만든 『明文選奇』를 만들기도 했다. 특히 『명문선기』는 180여 명이나 되는 작가를 수록하고 있는 『명문기상』이 오히려 너무 번다하다고 여겨, 우리나라의 실정에 잘 맞지 않는 것, 또 자신의 문장관과 일치하지 않는 것 등은 제외하고 우리의 실정에 맞게 재조정한 일종의 ‘다이제스트본’이라는 점에서 특기할만하다.⁵⁵⁾

먼저 『修山集』 권1에 실려 있는 〈明文奇賞後序〉를 살펴보기로 한다.

문장은 병법과 같으니, 병법의 쓰임은 바로 군진을 배치하고 기정법을 근본으로 삼는 데에 달려있다. 삼대 이상의 시대에 병법은 井田에서 비롯되었는데, 성인이 그 모습을 본떠서 구궁의 진과 師卦의 진영을 만드셨으니, 그 몸체는 원형이고 형태는 방형이다. 이른바 『역』은 기이하면서도 법도를 지키고, 『시』는 정격이면서도 화려하다.⁵⁶⁾

이종휘는 서문의 서두에서, 『명문기상』의 저자 진인석이 자주 활용한바 있는 병법의 예와 奇正의 논리를 활용하여, 육경과 당송의 문장, 명대 문장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이종휘는 계속해서 “『상서』는 광대하여 끝이 없고, 『주서』는 엄숙하고 질박하니, 이것은 정격 중의 정격이다. (商書瀨瀨爾, 周書噩噩爾者, 此正之正也)”, “이른바 춘추 가운데 『좌전』의 과장됨과, 『공양전』의 간략함과, 『곡량전』의 간결함과, 사마천의 『사기』와 반고의 『한서』의 준일하고 성조와 음절이 촉금한 것은 정격 가운데 기격인 경우이다.(此正之奇也, 所謂左氏浮夸, 公羊之簡, 穀梁之潔, 馬遷、班固之俊逸邇緊者也.)”라고 하면서, 기격과 정격을 자유자재로 활용하였던 육경 및 사서, 제자백가서의 글쓰기를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종휘는 당송팔대가와 명나라 문장의 장·단점 역시 병

55) 한편, 명말청초의 문인 金之俊 역시 같은 이유로 진인석이 선별한 작품 가운데 道에 부합하는 몇몇 작품을 따로 모아 抄集한 『明文奇賞抄』를 남겼다(김지준, 『金文通公集』 권1, 〈明文奇賞抄序〉).

56) 이종휘, 『수산집』 권1, 〈명문기상후서〉, “文猶兵也, 兵之用, 在置陣而主於奇正. 三代以上, 兵出於井田, 聖人象之, 為九宮之陣, 師卦之營, 其體圓, 其形方, 所謂易奇而法, 詩正而葩.”

법의 활용에 비유하여 평가하고 있다. 당송팔대가의 글은 조종과 기결 등 다양하고 신묘한 문장배치를 본받을 수 있으나, 뒤이어 등장한 여러 문인들은 — 아마도 명대 초중기의 문인들 — 그 기미를 따라 변화에 대응하고자 하여 부득이하게 복고를 지향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그런데 송나라의 문장을 비판하며 등장한 명대의 복고적 문풍은 마치 츠그림을 깨뜨리고 고대의 명법을 본받고자 하다가 능히 전장에서 대처할 수 없는 것처럼, 당송팔대가 산문이나 육경을 의지하고 본받아 그 본체를 터득하고자 하다가 변화된 실상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는 잘못이 있다고 보았다.⁵⁷⁾ 이종휘는 이 글의 말미에 다음과 같이 명대의 문단 동향을 정리하고 있다.

아아, 세상에서는 “명나라 산문은 기이하고자 하다가, 지나치게 기이한 잘못이 있으므로, 기격 가운데 기격에 속할만하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다만 그 실상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고법을 추구하다가는 마침내 몹시도 지체되는 잘못에 빠져버리는 수가 있는데, 송나라 방진의 류가 그러한 경우이다. (그러나 명나라는) 당송의 국면을 따르면서도 기세가 약해지는 실수가 없고, 진한과 동체를 이루어 치달리면서도 케이한 데에 빠지는 실수가 없이, 조용하고 여유로우면서도 기격과 정격의 길을 달려가니, 거의 문단계의 孫子와 吳子라고 하겠다.⁵⁸⁾

이종휘는 명나라 산문이 지나치게 기이하다는 세간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 먼저 언급하고 있다. 이는 조선 후기에 유행하던 소품문, 혹은 전후칠자나 경릉과 등에 대한 과대평가와도 일정 부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종휘는 이러한 평가가 명나라 글의 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명대 산문의 장처 가운데 하나인 中正하고 온유돈후한 글은

57) 이종휘, 『수산집』 권1, 〈명문기상후서〉, “唐二氏宋六家之特起，皆矯厲翹翔，極其變化，而操縱之妙，起結之神，其爲法，蓋亦幾乎盡，而其術，亦已窮矣。繼是而才智之士出，而欲隨機應變，自開門戶，則不得不爲回淳反朴之術。此宋之方陣所以破六花之奇，依據九宮師卦之遺，得其體而惟變之失，至於鈍滯重遲，能守而不能戰也，明之文，蓋亦失之此。”

58) 이종휘, 『수산집』 권1, 〈명문기상후서〉, “嗟夫！世謂：‘明文，欲奇而過於奇，可以屬之奇之奇。’殊不知其實，求之古，而遂失諸鈍滯重遲，宋之方陣之流也。夫沿唐宋之局而無失之弱，馳秦漢之軌而無失諸詭，從容整暇而範驅於奇正之塗，則庶幾文苑之孫，吳歟！”

외면하고 독특한 것만 보아왔다는 것이다. 이때 이종휘가 명나라 산문의 실상을 파악한 주요 자료가 바로 『명문기상』이었다. ‘고법을 추구하다가 지체되는 잘못에 빠졌다’는 언급은 전후칠자를 위시한 의고파를 염두에 둔 표현으로 보인다. ‘송 방진의 류’라는 것은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으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진을 배치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고식적인 진법의 예시를 든 것 같다.

그러나 이종휘는 명대의 산문, 특히 『명문기상』에 수록된 글들이 당송의 기세가 약해지는 오류와 진한의 생경함을 모두 극복하여 온유돈후하면서도 상황에 따라 기격과 정격을 쓴 최고의 글이라고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종휘가 진인석의 선문관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었으며, 『명문기상』에 가장 많은 수가 수록된 이학가와 대각파 문인의 글쓰기를 정확하게 이해했다는 방증이다. 이종휘에 따르면 전후칠자나 공안파, 경릉파의 기이한 글만이 명나라 산문의 요체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명문기상』에 수록된 작가들을 문단계의 손자와 오자라는 최고의 병법가에 비유함으로써 명대 문단의 다양한 경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려 한 것이다. 이처럼 조선의 문인으로 하여금 명대 산문을 선진양한부터 당송을 거쳐 이어지는 거대한 흐름 속에 나란히 놓고 그 장단점을 비판적으로 제시하도록 함과 동시에, 특히 그 장처를 적극 발견하도록 한 원동력이 바로 『명문기상』이었다. 요컨대 조선 후기에 중국본 산문선집의 수용이 조선 문인들의 명대 문단에 대한 객관적 학습과 이해의 유용한 수단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계속해서 『수산집』 권2에는 〈明文選奇敍〉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 또한 대단히 흥미로운 기록이다.

『명문기상』은 황명의 태사인 진인석이 찬한 저서로, 만력 이상의 여러 군자들의 산문 가운데 들어가지 않은 것이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황강 김계휘가 예부에 올린 두 수의 글도 선집 안에 들어가 있다. 그것은 바로 간이 죄립과 제봉 고경명이 대찬한 것이다. 이에 대해 진씨가 평하기를 “조선의 사람들은 송대의 글을 모르므로 古氣가 있다.”라고 하였다. 대개 죄립의 글은 좌전과 국어를 조종으로 삼고, 한유와 유종원을 조종으로 삼아, 구양수와 소식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 한 것이다. 내가 그 가운데 더욱 기이한 것들을 모아서 두 책을 만들어, 『명문선기』라고 하였다.⁵⁹⁾

『명문선기』는 현전하지 않으나 이종휘가 남긴 서문을 통해 책의 대체적인 규모와 내용을 짐작할 수 있으며, 아울러 조선 후기의 문인들이 명문선집을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기본적인 논조는 〈명문기상후서〉와 거의 동일하다. 그런데 이 글에서 이종휘는 “문장에서奇格을 버리면 正格이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제자백가가 없으면 四書의 위대함을 알 수 없고, 참록이나 도위 같은 서적이 없으면 六經의 바름을 알 수 없으며, 象山(육구연), 陽明(왕수인), 曹溪(未詳), 白沙(진현장)의 저서가 없으면 정주학을 알 수 없으니 모두 버릴 수 없다.”라고 하였다. 즉 정격과 기격을 모두 알아야 각 문장의 장단점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명나라와 조선 후기는 그 시대가 서로 가깝고 문화와 풍속 역시 서로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잘못된 부분은 찾아서 경계하고, 내면에 가까이 할 만한 부분은 힘써 이르러야 한다고 보았다. 이를 마지막으로 이종휘는 〈명문기상후서〉의 서두를 재언급하면서, 정격을 배우기 위해서는 오히려 기격 역시 알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따라서 『명문기상』 가운데 기격을 더욱 드러내는 작품을 따로 초록하여 2책의 『명문선기』를 만든 것이다.⁶⁰⁾

이종휘가 남긴 두 편의 글에서 명대의 문학은 조선의 문학을 판단하고 조선의 문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준으로서의 의미가 아니었다. 또한 명문선집은 글쓰기 방식을 학습하는 ‘학습서’이자 명대 문단의 동향을 파악하는 인덱스로 기능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이종휘는 명문선집에 대한 단

59) 이종휘, 『수산집』 권2, 〈明文選奇敘〉, “明文奇賞者, 皇明太史陳仁錫氏所選也。萬曆以上諸君子之文, 無不入焉。而我東黃岡金繼輝上禮部書凡二首, 亦在選中, 乃崔簡易立之。高齋峰而順代撰也。陳氏評曰: ‘東人不知宋文, 故有古氣。’蓋立之之文, 祖左國, 翰韓、柳, 而不學歐、蘇故云也。余抄其尤奇者爲二冊, 曰『明文選奇』。”

60) 이종휘, 『수산집』 권2, 〈명문선기서〉, “夫奇者, 正之反也, 其類爲偏爲窮爲巧爲僻爲險怪, 陳氏既斯之取, 而余又加焉者, 何也? 竊嘗論之。凡天下之物理, 不能棄奇而以見其正。(中略)而至於文亦然, 無諸子百家, 不能見四書之大也; 無圖緯識數, 不能見六經之正也; 無象山、陽明、曹溪、白沙之書, 則無以見濂洛關閩之學也。要之皆不可廢也。(中略)况世之相近, 而人文風氣之亦不相遠, 其過也可以戒, 而其近裏也, 亦可以勉而至焉。(中略)韓子曰: ‘易奇而法, 詩正而葩。’夫葩亦奇也, 多識於草木鳥獸之名, 而以爲葩, 是正亦在於奇也。余纂是編, 亦以爲草木鳥獸而已, 苟覽者見葩以好奇, 則非余之意也。”

순한 독서 행위를 넘어 주체적으로 자신만의 관점에서 『명문기상』을 이해하고 재가공하였다. 요컨대 중국의 글쓰기와 문장선집을 수용함에 있어 그 영향을 단순 수수하는 입장이 아니라, 자신의 특수한 취향에 맞도록 재편집함으로써 명문선집의 조선적 수용의 일단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조인영(趙寅永, 1782~1850)의 『雲石遺稿』에도 『명문기상』을 읽은 흔적이 드러난다. 조인영은 풍양 조씨 세도정치의 중심에 있던 인물인데, 그가 李潞에게 『명문기상』을 빌려주며 화답을 바라는 장편의 시를 지어 보낸 것이다.

송렴, 유기, 王禕, 왕진은 동남쪽의 훌륭한 인재였으니, 찬란하게 글을 지어 聲明을 기록했다네. 뒤를 이어 화창한 자는 방효유이니, 태산북두처럼 우리리보고, 온 사해를 기울였다네. 대가와 명가가 굳건히 서로 이어지니, 중엽에는 문성공(왕수인의 시호)이 독보적이네. 태평성대가 점차 오래되어 원기가 깨이었고, 위야한 문풍이 만연하다 굳세고 생경한 데로 떨어졌다네. 이때에 하경명과 이몽양이 힘써 떨쳐 일어나니, 한 번 옛 법도를 죽기를 前漢(전한)으로부터 하였네. 백설루가 세워지니 문풍이 더욱 높아졌다네. 뒤이어 나온 일곱 문인은 문단의 맹주가 되었네. 쭉 정의를 쓸어버리고 주옥을 사모하며, 송나라를 초월하고 당나라를 앞질러 종횡무진 했다네. 어떤 경우는 구양수와 증공을 통달하고, 三蘇로 갈라져 나왔으나, 망령되고 용렬하게 크게 조소하는 것은 왕세정의 흠이로다. 이로부터 천하의 글을 짓는 무리가 주룩주룩 각자 그 기예를 울렸고, 바로 이때부터 이득하게 여향이 혼란해져 서위와 원중랑 외에는 족히 이름날 자가 없었다네. 동벽(황궁 도서관)에 광채가 휘날린 지 300년이라, 홍무 연간에 거의 변하여 천계-승정연간에 이르렀네. 쇠락한 세상이 되어 문장에 난삽하고 생경하였으나, 善人의 문장은 화평하였다네. 道에 관한 일은 비록 미약하나마 빠져서는 안되는 것. 항상 치도의 형통 여부가 달려있다네. 뉘라서 능히 이를 친술하여 후학들을 권면할까? 태사 진인석에 의지하여 180명의 작가들의 장치를 뽑아, 힘써 한 부를 만들었으니 품조와 식견이 정밀하였다네. 동쪽 오랑캐라 비루하다 여기지 않으니 중화 문명 역시 뜻 영광으로 나아갔다네. 특별히 『명문기상』이라고 이름 짓고 먼저 序例를 제시한 뒤, 비평을 가했다네.⁽⁶¹⁾

61) 趙寅永, 『雲石遺稿』 권1, 〈以明文奇賞, 奉借李可用, 仍呈長句乞和〉, “濂基韓緒東南美, 煥然製作記聲明. 繼而和者方正學, 山斗宗仰四海傾. 大家名家武相接, 中葉獨步王文成. 太平漸久元氣削, 蔓延萎弱墜雄効. 是時何李力振之, 一循古規自西京. 白雪樓起風益高, 後進七子狎主盟. 下掃粃糠摹琬琰, 超宋軼唐劇縱橫. 或開歐會三蘇派, 妄庸巨誚疵世貞. 從此天下操觚輩, 滾滾各以其藝鳴. 正始杳茫餘響亂, 徐袁以外無足名. 東壁光輝三百載, 洪武幾變至啓禎. 衰世於文多鉤棘, 吉人之辭和而平. 斯事雖微不可闕, 恒與治道關否亨. 誰能刪述嘉後學? 賴有太史陳明卿. 百八十人人取長, 勒

조인영은 이 장편 한시를 통해 명대 문단의 역사를 시대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짚고 있다. 먼저 명초 대각과 문인들을 한 부류로 보고, 이 부류는 길이 태평성대를 분식하는 대각문학의 특징을 보이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하경명과 이몽양 등 전칠자가 명초의 대각과 문인들을 비판하며 등장하였음을 언급하고 있다. ‘서경’이란 장안에 도읍을 정했던 西漢 즉 前漢의 시대를 가리키는데 이를 통해 전칠자가 전한의 문풍으로 복귀할 것을 주장하는 의고를 주장하였음을 드러내고 있다. 조인영은 전칠자가 대각문학이 보였던 위약한 문풍을 시정하고자 하였으나 역시 생경하고 난삽한 글쓰기로 빠졌음을 단점으로 지적하였다. ‘백설루’란 이반룡의 書室의 이름이다. 전칠자를 이어 등장한 후칠자는 ‘주옥’을 사모했다고 하였는데, 이는 후칠자가 碑誌文의 창작에 집중했던 정황을 지칭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조인영은 전후칠자가 송대의 글을 비판하고 당대로 돌아가고자 하였으나 여기에 잘못이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전후칠자의 뒤로는 서위와 원중랑 외에는 볼 것이 없다고 하였다.

이 글은 말하자면 마치 『명문기상』의 ‘目次’처럼 그 대략을 시로 표현하면서 각 문인유파의 장단점을 평가하는 작업도 놓치지 않고 있다. 이는 명문선집이 명대 문단의 다양한 섭렵과 그에 대한 객관적 이해에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좋은 사례로 보인다.⁽⁶²⁾

3. 19세기 초 자체적 선집 마련의 욕구: 한장석

다음으로 조선 후기의 문신 韓章錫(1832~1894)의 문집에 남아 있는 〈答宋景瑗伯玉書〉를 살펴보겠다.

제가 생각하건데, 우리나라에는 크고 박식한 선비들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成一部神識精。不以東裔爲卑鄙，中華亦進參羣英。特書明文奇賞字，先揭序例次批評。”

(62) 최은주, 「17세기 시선집 편찬에 대한 연구」, 경북대 박사학위논문, 2008, 21면 참고.

그러나 그 문집들이 너무 번다하여, 모아서 통일시킨 것이 없다는 병통이 있습니다. 간행되지 않은 문집들도 점차 없어지는 지경에 이를 것이니, 만약 그 가운데 정수를 수집하고 채록하여 합해서 한 권을 만들어, 우리나라 소명태자의『문선』,『당문수』,『송문감』,『명문기상』의 뒤에 반열 지위, 그것으로써 우리나라의 문교를 표창하고, 前賢들의 은은한 문광을 드러낸다면 즉 나는 비록 저서가 없더라도, 그 공은 작자와 나란할 것입니다.⁽⁶³⁾

이 글은 한장석이 송백옥(1837~1887)에게 문장선집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는 편지인데, 그 가운데 명대 문장선집의 예시로 든 것이 바로『명문기상』이다.『문선』,『당문수』,『송문감』등 조선에 일찍이 수용되어 중국 문단에 대한 학습서로 기능을 해왔던 선집들과『명문기상』을 나란히 배치하고 있는 것을 특기할 만하다.『명문기상』의 위상을 대단히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조선 역시 자체적으로 문장선집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이 글에서 한장석은『명문기상』이 갖는 선집으로서의 특징을 지적하고 있다. 즉, 번다하고 일실되기 쉬운 문인들의 문집 가운데 정수를 모아 통일시켜 그 시대의 문교를 드러낸다는 문선집의 기록문학적 효용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명문기상』의 편찬자인 진인석이〈명문기상서〉에서 언급한 내용과도 일치한다.

특히 이 편지의 수신자가 송백옥이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송백옥은 고려와 조선시대 고문가들의 글을 선집하여 우리 글의 우수성을 드러낸『東文集成』(36권 18책)의 편자이다. 조선 중기까지 국내에서 만들어진 문장선집들은 대부분 중국의 예를 따라 문제별 분류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⁶⁴⁾ 그러나 송백옥은 전통적인 문장선집과 달리, 작가별 집선 방식으로 문장선집을 내놓았으니 이 과정에 진인석의『명문기상』과 같은 작가별 문장선집이 일정부분 영향을 끼쳤음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이전시기까지 드물었던 조선의 문장선집이 18세기를 지나 활발하게 편찬되기 시작한 것도 중

(63) 한장석,『眉山集』 권4, 〈答宋景瑗伯玉書〉, “竊惟我東鴻匠宏儒, 肩背相望, 而家集太繁, 痘無以會其統。未刊者又漸就泯滅, 苛能蒐採英華, 合爲一書, 列于梁選, 唐粹, 宋文鑑, 明奇賞之後, 以昭昭代之文教, 發前脩之潛光, 則已雖無作, 其功可與作者並。”

(64) 물론 원호문의『중주집』이나, 모곤의『당송팔대가문초』의 영향 역시 고려해야 한다.

국본 문장선집에 일정부분 자극을 받은 소치일 가능성이 있다.

V. 결론

이상으로 조선 후기에 유통되었던 명문선집 가운데 『명문기상』에 초점을 맞추어, 그 체제와 내용을 파악하고 명문선집의 수용이 조선 문인들의 명대 문단에 대한 이해와 어떠한 관련을 보이는지 고찰해보았다. 조선 후기, 특히 17세기 말부터 18세기에 이르는 ‘한문 산문의 르네상스’는 중국에서 들어온 개별 문집과 저술, 또 이를 종합적으로 아우른 총집류 서적의 독서 등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본고는 산문선집과 같은 총집류의 수용이 학습의 측면에서 유용했다는 점, 문단의 총체적 동향을 파악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자료라는 점, 명대는 산문사상 치열함과 다양성 면에서 매우 복잡다기한 시기였으므로 그 경향을 파악하는 데 산문선집의 수용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인덱스가 될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였다. 그리고 조선 후기에 유통되었던 『명문기상』을 통해 명대의 산문작품과 산문론이 조선에 수용되고 비판적으로 이해된 구체적 양상과 각 사례를 시기별로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명문선집의 수용은 명대 문단을 유파별로 나누어 이해하는 새로운 자료이자 발견의 근거가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물론 거칠의 총집류 서적이 수많은 문인들의 다양한 문학적 취향을 모두 충족시킬 수는 없었을 것이며, 문장 선집에 대한 이해와 당대의 실제 문학 창작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도 놓후하다. 그러나 중국본 명대 산문선집에 대한 이상의 독서기록을 통해, 명문선집이 명대 산문의 다양한 경향성을 한 눈에 파악하기에 가장 효율적인 자료로서 조선 후기 문인들이 명대 문단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의 시각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명문선집을 수용한 조선 후기의 유력 문인들은 명대 산문 가운데 학자적 여유로움과 중정한 미학을 드러내는 글을 더욱 중시하였으며 오히려 전후칠

자나 공안파, 경릉파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바라보았다. 나아가 명대의 다양한 산문들 가운데 자신의 문학적 취향에 맞는 것을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또 다른 문장선집으로 재가공하는 사례 역시 발견할 수 있었다. 요컨대 조선 후기의 문인들은 명대 문학의 단선적·계기적 수용자가 아니므로, 고문과 소품의 이분법, 전후칠자에 대한 경도를 넘어서 조선 후기 산문에 대한 보다 세밀한 독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農巖集』(한국문집총간)
『陶谷集』(한국문집총간)
『明文奇賞』(규장각 소장본)
『明文授讀』(규장각 소장본)
『明文英華』(규장각 소장본)
『明十一家文選』(규장각 소장본)
『眉山先生文集』(한국문집총간)
『修山集』(한국문집총간)
『淵泉先生文集』(한국문집총간)
『雲石遺稿』(한국문집총간)
『青莊館全書』(한국문집총간)
『澤堂先生集』(한국문집총간)
『豹菴稿』(한국문집총간)
『해동역사』(한국문집총간)
『홈영』(규장각 소장본)
『문연각사고전서』(전자판)

강명관, 『공안파와 조선 후기 한문학』, 소명출판, 2007.

강명관, 『안쪽과 바깥쪽』, 소명출판, 2007.

안대희, 『조선후기 소품문의 실체』, 태학사, 2003.

정 민, 『조선 후기 고문론 연구』, 아세아문화사, 1989.

顧易生, 『明代文學批評史』, 상해고적출판사, 1991.

강명관, 「16세기 말 17세기 초 擬古文派의 수용과 진한고문파의 성립」, 『한국
한문학연구』 18, 한국한문학회, 1995.

강명관, 「16세기 말 17세기 초 진한고문파의 산문비평론」, 『대동문화연구』 41,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2.

김대중, 「조선후기 한문학 연구와 ‘중국’이라는 타자」, 『대동문화연구』 60집,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7.

김영진, 「조선후기의 명청소품 수용과 소품문의 전개 양상」, 고려대 박사학위논

- 문, 2003.
- 김종철, 「『東文選』 편찬체제의 選文學的 類型性과 그 의미」, 〈19세기 한국한문학의 諸樣相 학술발표대회〉, 우리한문학회, 동방한문학회, 2003.
- 남정희, 「조선후기 공안파 서적 수용 실태의 탐색」, 『한국고전연구』 12, 한국고전연구학회, 2005.
- 노경희, 「17세기 명대문학론의 유입과 한문산문의 ‘朝鮮的’ 전개에 대한 一考」, 『고전문학연구』 27, 한국고전문학회, 2005.
- 노경희, 「허균의 중국문단과의 접촉과 시선집 편찬 연구」, 『한국한시연구』 14, 한국한시학회, 2006.
- 송혁기, 「18세기 초 산문이론의 전개양상」, 『한국한문학연구』 31, 한국한문학회, 2003.
- 송혁기, 「17세기 후반~18세기 초 허목계열 남인문단의 산문론」, 『민족문학사연구』 27, 민족문학사학회, 2006.
- 안대희, 「중국시화의 조선간본고」, 『계간서지학보』 16, 서지학회, 1995.
- 이종득, 「조선전기 관각문학의 성격과 문예미」, 『국문학연구』 8, 국문학회, 2002.
- 장유승, 「18세기 소론계 학통의 다각적 조명—이종희의 자국사 인식과 소중화 주의」, 『민족문학사연구』 35, 민족문학사학회, 2007.
- 장유승, 「도곡 이의현의 한시 비평론」, 『한국한시작가연구』 13, 한국한시학회, 2009.
- 최은주, 「조선후기 시문선집에 나타난 명대 문학의 수용 양상」, 『동방한문학』 24, 동방한문학회, 2003.
- 최은주, 「17세기 시선집 편찬에 대한 연구」, 경북대 박사학위논문, 2008.
- 陳煒舜, 「陳仁錫及其〈楚辭〉眉批考探」, 『中國文化研究所學報』 54, 2012.